

■ 김익두 (金益斗 / 1874년 11월 3일 ~ 1950년 10월 14일 = 향년 75세)

- 출생 : 1874년 11월 3일 → 황해도 안악군
- 사망 : 1950년 10월 14일 (향년 75세) → 황해도 신천군 신천교회당
- 가족 : 부친 김응선(金應善) / 모친 전익선(田益善)
부인 김익진(金益眞)
삼남 김용식(축구인 / 한국축구 1세대 원로)
외손자 조바울 (외손자)¹⁾
- 종교 : 개신교(장로회) 목사



□ 북한의 목사, 분단 전에는 ‘안악산골의 호랑이’라는 치유의 기적으로 유명하였다. 그 유명세로 인해 북한의 종교 와해 공작을 위한 단체인 친정부 종교 단체 ‘조선기독교도련맹’에 강제로 가입되고는 총회장으로 추대될 정도로²⁾ 크게 견제를 받던 인물이었으며, 대한민국 국군 입성을 환영하는 집회를 광고하다가 6.25 전쟁 도중 퇴각하는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순교하였다.³⁾

■ 출생부터 중생 전까지 4)

김익두(金益斗) 목사의 생애는 마치 한편의 신앙소설과 같은 깊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전한다.⁵⁾ 김익두 목사의 출생과 가정의 내력에 관하여는 비교적 많은 자료(資料)와 사료(史料)들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⁶⁾

김익두가 출생한 1870년대 이후는 구한말(舊韓末)의 시대였다.⁷⁾ 병인박해(丙寅迫害),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 임오군란(壬午軍亂), 운양호 사건, 강화도 조약, 을사강제조약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⁸⁾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김익두는 조선으로는 고종 11년이며⁹⁾ 일본에서는 명치유신(明治維新)때인 1874년 11월 3일, 동틀 새벽에 태어났다.¹⁰⁾ 그것도 어느 점잖은 양반 선비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¹¹⁾ 그가 출생한 지역은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대원면(大遠面) 평촌리(坪村里)이고¹²⁾ 부친은 청풍(淸風) 김씨 김응선(金應善)씨이며, 모친은 전익선(田益善)씨였다.¹³⁾

이러한 김익두의 출생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김린서(金麟瑞)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朝鮮 初代教會는, 靈溪 先生의 靈化運動을 通하여, 그 터가 잡혔었다. 그러나 新文化 輸入의 先驅가 되었던 科學思潮와 함께, 新神學思潮가 浸濕함에 이르러, 信仰上 動搖가 생기게 되고, 한편 民族主義者에게 利用되는 일도 있었으며, 또 한편 社會主義의 妨害도 받게 되어 己未 前後의 朝鮮 教會는, 正히 危

1) 1994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였다.
2) 김익두도 김일성을 지지한다는 선전을 위함이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공작까지 벌였다.
3) 이때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이 피난을 권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거든 내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며 끝까지 피난하지 않았다.
4) 출처 : 2001년 장신대 석사학위 논문 “김익두 목사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Th.M) 역사신학 전공, 김철웅
5)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144~146쪽.
6) 민경배, 향목, 김익두, 『基督教大百科事典』 3권 (1984).
7)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도서출판 들녘, 1997), 45~59쪽
8) 이현희, 『이야기 한국사』, 36~50쪽
9) 신광철, 민족적 실의 극복한 이적의 사도 김익두 목사, 『목회와 신학』, 197쪽.
10) 김仁洙,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30쪽
11)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서울: 信望愛社, 1976), 96쪽
12) 李贊英, 『韓國基督教會史總覽』 (서울: 圖書出版 所望社, 1994), 449쪽.
13) 閔庚培, 『日帝下의 韓國基督教 民族·信仰運動史』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92쪽

機였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교회를 위하여 내세운 종이, 權能의 使者 김익두 였다.……이 때에 하나님은 不遠한 後日을 爲하여 主의 종을 半島西隅에서 기르시니 戀 虎頭(연암 호두)에 身體는 强健하고, 張耳 淸眼에 精神은 聰明하고, 額 海口에 위인이 俊秀하였다. 巍巍 아스달 聖峰이 斯人의 氣質에 影響한 바 있었다면 黎明의 時代的 雲圍氣도 또한 斯人의 精神上 刺戟이 어찌 없었으리요. 이렇듯 强健(强健)하고, 또 聰明(聰明)한 品質(品質)을 받고 여명(黎明)의 때에 태어난 선생은,……14)

위와 같이, 김익두의 아버지 김응선씨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부잣집의 인물이었으며 그 동네에서 한 눈에 탁 보이는 큰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재력가(財力家)였다. 또한 김응선씨는 그 지역의 유지(維持)로서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大小事)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품 또한 선비다운 엄격성과 인간적인 동정심을 겸한 선량한 양반이었다. 더우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에 동네 글방¹⁵⁾이라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어 공부를 시켰는데,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김응선씨는 바로 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선생이었다.

김익두의 부친 김응선씨는 한(漢)학자의 전통적 가문에 걸맞는 한학에 능통한 선비로서 풍채가 늙름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호걸풍의 부자이어서 안악 일대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따금씩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기를 잘 하였고 의지할데 없는 노인들이나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 양식을 풀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일에 김익두 목사의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로 정직하고 곧은 성품은 아버지 김응선씨로부터 받은 유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¹⁶⁾

이러한 김익두의 부친에 대한 정보와는 달리, 김익두의 어머니인 전익선씨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단순히 母夫人 田氏는 賢淑한 典型的 朝鮮女子라 집을 잘 다스려 規 있는 家庭이었다.¹⁷⁾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저 어질고 착하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익두가 목사가 된 후에 전익선 여사는 아들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항상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한다.¹⁸⁾ 한번은 자신의 돈보기 안경이 깨졌을 때 아들의 권유에 의하여 천국의 안경을 주셔서 영안(靈眼)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¹⁹⁾ 김익두의 어머니 전익선씨는 김익두 목사가 부흥집회에 가고 없는 사이 병석에 눕게 되어 76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소천받았고, 김익두 목사는 집회인도 도중에 모친의 부음(訃音)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집회를 중단치 않고 집회를 다 마친 후 남대문교회에서 찬송가 469장(통일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를 부르며 모친의 장례를 눈물로 치루었다.²⁰⁾ 아마도 김익두의 부모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때 김익두는 어렸을 때에 특별한 신앙적 모범이나 신앙적 동기유발을 부모로부터 받을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유년시절의 김익두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몇가지 얘기가 남아있다.²¹⁾

14)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95~96쪽.

15) 동네 글방이란 그 당시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는 동네국민학교이다. 그때는 돈 5전씩 지출하고 다니는 정식학교가 있었지만 그 당시 조선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를 나오면 나라에서 군인으로 뽑아간다고 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동네 글방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나 면장이 가가호호(家戶戶)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서울: 보이스사, 1993년), 80쪽

16)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성서신학서원, 1995), 11쪽

17)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96쪽.

18)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62쪽.

19)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75~79쪽.

20)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63~64쪽.

21) 최현, 『대부흥사 김익두』, 13~16쪽.

그의 부친은 일찍부터 김익두에게 한학(漢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880년, 김익두는 그가 7살 되던 해에 부친이 가르치는 동네 글방에 입학하여 천자문(千字文),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 대학(大學)을 탐독하며 글공부를 시작했다.²²⁾ 그러나 김익두는 외아들이었다.²³⁾ 때문에 김익두는 자기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마디로 상당한 개구쟁이였던 것이다.²⁴⁾ 소년시절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그의 버릇없는 성격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김익두가 16살 되던해인 188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를 동네깡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개구쟁이 말쑥꾼 김익두에게도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마음은 지극하였다고 한다. 모친 전익선씨가 한번은 병으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김익두는 읍내의 의사에게 왕진(往診)을 청하려고 혼자서 30리가 넘는 먼길을 밤을 세워 뛰어가 의원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치료케 하였으며, 눈물을 흘리며 간호하는 소년 김익두의 헌신어린 모습을 본 의원은 그 효심에 감동이 되어 진료비도 받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²⁶⁾ 훗날그는 설교강단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였다고 한다.²⁷⁾ 김린서 목사는 이러한 김익두 목사의 효심(孝心)에 대하여 忠臣은 必求 於孝之門이란 옛 글과 같이 大傳道者도 必求於孝子之門인가 하노라.²⁸⁾하며 극찬(極讚)하였다.

1889년, 김익두가 16살 되는 해이다. 그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듯이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

익두의 부친 김응선씨는 외아들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 어떻게 하든지 하루속히 과거에 급제시켜 벼슬을 받게 하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익두의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혹독하리 만큼 엄하게 하였고 채찍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열성에 못이겨 16살의 익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때로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를 지경으로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²⁹⁾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였던 김익두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아버지 김응선씨가 돌아가셨다. 김응선씨는 김익두에게 너는 사람구실을 하여야 한다.³⁰⁾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 하나님께 소천(所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익두는 1890년 그가 17세 되던 해에 산사(山寺)를 하나 생각해 내고 입산수도(入山修道)를 결심하게 되었다. 불도(佛道)의 생활은 그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다. 이후에 벽곡(辟穀)³¹⁾도 해보고 동학(東學)에도 심취했었으나 그것도 만족없는 고민 속의 방황일 뿐이었다.³²⁾ 이후 18세의 김익두는 평촌리 마을의 16세 김익진(金益眞)³³⁾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하여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다.

22)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11쪽

23) 김응선씨는 슬하에 아들 김익두외에도 김형도(金亨道)라는 딸이 한명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여동생에 대하여는 김익두의 여동생이었다는 정보외에 다른 행적을 찾을 수 없다.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20쪽

24)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81쪽.

25) 위의 책, 82쪽.

26) 김익두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30리 길을 밤세워 달려가 의원을 불러왔다는 이야기는 약간 상이(相異)한 두가지 출처(出處)를 가지고 있다.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12쪽에서는 이 당시 김익두는 과거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15~16세로 추정)에 어머니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었던 것을 김익두가 의원을 데려와 고쳤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8쪽에서는 이 당시 김익두는 13세였고 어머니의 병은 중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 사건의 시기와 그 병명(病名)의 진실성 보다는 김익두가 소년시절 효심이 지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로 이 두가지 출처를 모두 밝히는 바이다.

27) 崔鉉, 『빛을 남긴 믿음의 위인』 (서울: 韓國文書宣教會, 1981), 207쪽.

28)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97쪽

29)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13쪽.

30)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96쪽.

31) 벽곡이라는 것은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 대추, 밤같은 것을 날것으로 먹으면서 사는 하나의 금욕적 실천의 수도생활을 일컫는 것이다. 金春培, 『韓國基讀敎受難史話』 (서울: 聖文學堂, 1979), 317쪽.

32) 閔庚培, 『日帝下 韓國基督教 民族·信仰運動史』, 292쪽

33) 김익두 목사의 첫번째 부인 김익진 사모는 1876년 6월 2일생이었으며, 1944년 11월 6일에 68세의 나이로 김익두 목사보다 먼저 별세하였다. 이분이 바로 할렐루야 축구단의 부장 김용식씨의 생모(生母)가 되는 분이다.(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18쪽.) 김익두 목사는 슬하에 성식, 인식, 용식 삼형제와 현식, 성락이라 불리는 딸을 낳아 모두 3남 2녀를 두었다.(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63쪽.) 그중에 세번째 아들 김용식씨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이제 한집안의 가장(家長)이 된 김익두는 이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김익두는 친구를 위하여 보증(保證)을 섰다가 가산(家産)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어느 작은 집의 사랑채를 하나 얻어 모친과 여동생 형도, 부인과 갓난아기 성식³⁴⁾을 데리고 가난에 찌들여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 김익두는 완전히 건달이요, 깡패요, 난봉질을 하는 패륜아로 전락이 되어 버렸다.³⁵⁾ 이때의 상황을 김광수(金光洙)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악명높은 불량아로서 안악군 일대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누구나 그에게 대항하였다가는 모조리 때려 눕히는 완력가인지라 그를 아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는 도중에 서낭당 앞을 지나게 되면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안악시장에서 그가 술을 마시고 냉면을 외상으로 먹고 값지 않은 것은 예사였으며 그렇다고 해서 잘못 건들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도 그에게는 독촉하지 못하였다.³⁶⁾

이와같이, 결국 김익두는 술집과 기생집 그리고 경찰서를 마치 자기네집 안방처럼 들락거리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의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 중생부터 목사안수 전까지

그러나 김익두도 연약한 인간이었다.³⁷⁾ 나 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스스로를 이길만한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과거에 낙방을 한 후 실패만 거듭하고 있을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아! 허무한 인생이여!³⁸⁾ 이와 같이 김익두에게도 인생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 생긴 것이다.³⁹⁾

김익두가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하여 이성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듯 인생문제(人生問題)를 부동켜 안고 번민(煩悶)하는 이 청년(靑年)에게도 남다른 기행(奇行)이 있었나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산(山)으로 달려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사(訴事)- 하소연한다는 뜻의 소願(願)하였다. 이것이 조선인(朝鮮人) 조선전래(朝鮮傳來)의 하나님(하늘님) 신앙(信仰)이요, 이것이 청년 김익두(金益斗)의 핏줄에 더 많이 흘렀던 신념(信念)이었다. 정부(正否)와 시비(是非)를 사람의 판결(判決)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呼訴)하는 이 사람이, 후일(後日) 그리스도인(人),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⁴⁰⁾

올림픽에 국가대표선수로 참가했던 인물이다.(배상길, 『빛을 남긴 위인들』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191쪽.) 삼남 김용식씨는 아버지 김익두 목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김목사는 용식씨를 목사로 키우려했으나 용식씨는 축구를 좋아하여 운동선수가 되기를 고집했다. 결국 용식씨는 축구선수가 되었고, 축구선수가 된 후에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히틀러로부터 술잔의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그리고 미국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술을 권하였는데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김익두 목사님과 약속을 어길 수 없다. 는 대답으로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김철, 축구재주꾼 김용식, 『뿌리깊은 나무』 (1979. 7), 140~46쪽.) 김목사와 삼남 용식씨와는 4가지 약속이 있었다. ① 아침에 성경보며 기도할 것 ② 말씀대로 행동할 것 ③ 하나님 아버지와 목사 아들로서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 ④ 이웃에 본이 될 것, 등이었다. 그리고 항상 골을 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용식씨의 버릇이었다.(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90~95쪽.)

34) 김익두 목사의 장남(長男)이다.

35) 고택구, 『한국교회 신앙체험사』 (서울: 백함서점, 1954), 55쪽

36)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서울: 기독교문사, 1974), 198쪽.

37) 호랑이라는 별명의 건달 김익두에게도 인간미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록 건달생활을 하였으나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도 마음이 약하고 온유한 청년이었다. 변 서방이라고 불리는 동네의 나병환자를 집에 데려다 먹여주었고 그 환자가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가 세든 셋방 뒤에 세를 들고 혼자 살고 있는 노파를 위해 양식을 계속 제공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박용규, 『김익두목사 전기』, 27~28쪽.

38) 김진환, 『한국교회 부흥운동사』 (서울: 크리스찬 비전사, 1976), 126쪽.

39) 金麟瑞, 『韓國教會 殉教者와 說敎集』 (서울: 신앙생활사, 1962), 107쪽.

40) 이성호, 『金益斗 牧師 說敎- 略傳集』 (서울: 惠文社), 136쪽.

결국 김익두는 1900년, 즉 그가 27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⁴¹⁾ 당시에 황해도에는 유태인 피득(彼得) 목사가 선교사로 활동하여 안악에도 40~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⁴²⁾ 김익두는 최초로 안악 장터에서 서양인 여자선교사⁴³⁾를 통하여 전도를 받았다. 김익두는 그녀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아 쥐자 그 자리에서 코를 풀고 그 종이를 돌려주며 그 여선교사를 희롱하려 했다. 그러니까 그 여선교사가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지요. 하면서 빙그레 웃으며 공손히 말했다.⁴⁴⁾ 그리고 다시 전도지를 김익두의 손에 쥐어 주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 전도지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서 김익두는 세세토록이라는 낱말에 관심이 끌렸고 자기에게 친절히 그 전도지를 주었던 그 서양 여자선교사의 언행(言行)에 신선한 감격을 느끼게 되었다.⁴⁵⁾

이후, 김익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소안련(W. Swallen)선교사⁴⁶⁾가 인도하는 금산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태환(朴泰煥)⁴⁷⁾이라는 친구의 역할이 지대하였는데, 그는 김익두에게 서양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잘하니 우리 예배당으로 한번 구경가자. 고 김익두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었다. 김익두는 그저 외국인이 조선말을 잘한다기에 재미삼아 가보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때 소안련 선교사는 금산교회 예배당에서 영생(永生)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익두는 바로 그날, 소안련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사람이란 죄 지은대로 보응을 받는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만 의인은 천국으로 간다. 는 설교말씀에 김익두의 가슴이 뜨끔하였으며 그날의 모든 말씀들이 김익두의 영혼을 감동시켰던 것이다.⁴⁸⁾ 한춘근 목사는 이날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마침,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열정적인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김익두는 소안련 선교사의 설교에 자신도 모르게 온 정신이 집중되어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감동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좌악된

41) 최현, 『대부흥사 김익두』, 49~53쪽.

42) 崔鉉, 『빛을 남긴 믿음의 위인』, 207쪽. /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1871년 12월 30일 ~ 1958년 6월 29일, 한국명 피득) 성경번역자, 찬송가 작사자, 복음전도자, 한국에서 구약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한 개신교 목사이다. 그가 1895년 한국에 와서 3년간 한국말을 배운 후 1898년 시편 150편 중 62편을 골라 우리말로 번역하여 '시편찬요'를 출간한 것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이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알타데나(Altadena) 소재 마운틴 뷰에 묻혔다. / 알렉산더 피터스는 1871년 우크라이나 에카페리나슬라브(현 드니프로시)의 정통파 유대교(Orthodox Jew)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Reuben Frumkin이고 어머니는 Rebecca Kaidanovsky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배웠고,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과 시편을 낭송하며 성장했다. 그가 자라났던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극심해서 유대인들은 이종교에 시달려야 했다. 알렉산더 피터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구러시아를 떠나기로 결단했다. 새롭게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집을 떠난 24세의 청년 피터스는 우여곡절 끝에 밀고 먼 일본 나가사키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세례받고 기독교인으로 중생하여 한국의 선교사가 되었다.

43)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당시 그 지역을 선교하고 있던 소안련(W. Swallen)선교사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익두는 이 소안련 선교사를 통하여 기독교로 입신하게 된다.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31쪽.

44) 이호문, 『한국기독교부흥인물사』, (인천: 초석출판사, 1978), 131쪽.

45)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31쪽

46) 한국명은 소안련(蘇安論)이며, 영어의 본명은 Swallen, William L.(1865~1954)이다. 미국에서 출생한 북장로교회 선교사이며 1892년 11월에 부인(Sallie Willison, 1863~1945)과 함께 한국선교사로 내한하였다. 마펫(S. A Moffett), 이길함(G. Lee)등과 함께 관서지방 개척선교사로 활동하였고, 게일(J. S. Gale), 맥길(W. McGill)과 함께 동부지역을 순회집회하기도 하였다. 1896년 원산에서 약학을 설립운영, 1899년 숭실학당 예배관리 책임자로 봉직, 1901년 부친의 유산 18,000원을 숭실학당에 기증,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 초대회장 피선, 1903년 평양장로회신학교 발족하였다. 그는 김익두 목사의 신앙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며 그에게 영향을 받은 목사는 김익두 목사 외에도 이기풍 목사가 있고 국내에서 25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 은퇴 후에는 미국으로 귀국하여 1945년 12월 31일에 부인이 먼저 별세하고 소안련은 1954년 5월 8일 소천였다. 슬하의 자녀는 4명의 딸을 두었는데 장녀(Olivette Swallen)은 한국선교사로 헌신했으며, 2녀(Gretrude)는 선교사의 부인이 되었다. 항목, 스왈런(Sw allen, William L), 『基督教大百科事典』 9권(1983).

47) 김익두의 죽마고우(竹馬故友)이며 훗날 장로(長老)가 되어 교회에 헌신했다고 전해진다.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31쪽, 어떻게 보면 김익두의 회심은 친구 박태환씨의 전도를 통한 결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훗날 무디는 될 수 없어도 무디를 전도한 김벌리는 될 수 있다는 격언처럼, 김익두는 못되어도 박태환은 될 수 있다. 라는 격언이 생겼다. 李贊英, 『韓國基督教會史總覽』, 449쪽

48) 최현, 『대부흥사 김익두』, 54~58쪽.

성품과 속죄,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의문이 설교를 듣는 동안 서서히 익두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뉘우침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심장이 고동쳤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전신이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익두는 그만밖으로 뛰쳐 나 오고 말았습니다. …… 잠시 동안 밖에서 숨을 가다듬던 익두는 다시 용기를 내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그 감동적인 설교를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 익두는 용서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소안론 선교사의 입에서 나온 용서라는 말과 함께 익두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고뇌의 문제들이 실오라기 풀리듯 일시에 풀려나가는 듯한 상쾌한 해방감이 스며왔습니다. 마침내, 26세의 김익두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극적인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⁴⁹⁾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익두의 어머니 전익선씨는 그날 밤 꿈속에서 자기의 아들 김익두가 마귀(魔鬼)의 형상을 한 짐승을 때려눕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⁵⁰⁾ 부흥집회가 끝난 후, 가슴을 칼로 찢는 것과 같은 성령의 불세례⁵¹⁾를 받은 김익두는 소안론 선교사의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고 같이 기도하며 계속 참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⁵²⁾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대사도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다.⁵³⁾라는 표현처럼 이후 김익두는 달라졌다. 이성호 목사는 김익두의 회심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때는 메이지 明治 33년(1900년)이니, 日淸戰爭이 이미 지나, 東洋天地는 뒤집혔고, 1907년의 信仰復興이 있기 바로 7년전이니, 朝鮮新敎가 發展의 氣勢를 올리던 時期였다.……30세는, 聖人들의 종교적 正覺에 到達하는 인생의 貴重한 時期라 하면, 30세를 바라보는 선생은 이 때를 잃지 않고서 부르심에 應한 것이다. 예수교를 西洋宗教라 하여 낮추어 賤視하던 선생도, 때가 이르매 主께 나오게 되었다.……朴泰煥은 청년 金益斗를 인도함으로써, 大事業을 한 것이다.⁵⁴⁾

김익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뒤부터 그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화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인이 된 김익두는 10개월 동안 언행을 삼가 조심했고, 그 10개월 동안 성경을 무려 1백독을 했다. 그가 세례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을때였다. 친구가 찾아왔다.

“이 사람아. 방구석에 이 무슨 청승인가. 답답하지 않은가? 주막에 가서 대포나 하지, 어서 일어나!”

“하. 내가 요새 약을 복용중이라 말야, 술을 못먹거든”

“무슨 약인데?”

“응,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거든,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처방이라서”⁵⁵⁾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 그 어느 날 냉면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보기도 싫고 밉기도 하여 뚜물 찌꺼기를 그가 지나가는 옆에 확 뿌렸다. 주인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애를 몹시 책망하였다. 김익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다.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은 그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49)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34쪽

50) 이성호, 『金益斗 牧師 說敎- 略傳集』, 144쪽, 신앙위인전기 편찬위원회, 『조만식·김익두』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4), 49쪽.

51) 鄭寅暎 編, 『金寅瑞著作全集』 5, 101, 쪽.

52) 엄두섭, 『좁은길로 간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4), 187쪽.

53) 金春培, 『韓國基讀敎受難史話』 (서울: 聖文學堂, 1979), 317쪽

54) 이성호, 『金益斗 牧師 說敎- 略傳集』, 143쪽.

55) 진수철, 『순교열전』 1권 (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4), 128쪽, 박금출, 『부흥사와 목회자의 실화사전』 제1권, 327쪽.

그냥 지나간 모양이나 다음 장날에는 우리 집은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크게 걱정을 하였다. 다음 장날이 되어 김익두가 그 집 앞을 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시오!” 라고 전도하였다.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고 새 김익두이올시다.” “당신에게 지은 외상 값은 후에 다 갚아 드리겠오.”라고 하자 주인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크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⁵⁶⁾

이외에도 그는 옛날의 술친구이자 건달인 김원봉을 찾아가 그를 전도하기도 하였으며, 항상 들락거리던 술집의 월선이와 옥화라는 기생(妓生)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⁵⁷⁾

그러나 이렇게 잘 변화하던 김익두는 3개월 뒤에 잠시동안 또다시 신앙을 실족(失足)하게 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된다. 즉, 자기도 모르게 주변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 거듭 과거와 같이 동일한 유혹을 즐기게 되었던 것이다. 순간, 김익두는 다시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깊은 회개의 순간을 다시금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김린서 목사는 김익두의 입교와 회개의 시기를 구별하며 그의 진정한 중생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先生은 처음 永生 道理에 感動하여 入教하였으니 求道가 動機가 비록 높다 하겠으나 悔改의 正門을 아직 通過하지 못하였다.……아직 悔改의 正門을 通過하지 못한 初信者에게는 무서운 危險이 있었다. 入教한지 三개월 만에…… 예전 酒朋들을 만나 저들이 끄는대로……빠지었다. 嗚呼! 『金益斗는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忽然 一思에 精神이 번쩍 돌아와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내달았다. 어찌나 痛忿한지 견딜 수 없어 山林中에 들어가서 었더니 칼로 가슴을 찌는 것처럼 가슴이 아파게 哀痛하였다. 山을 두드리다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다가 山을 두드리며 울었다. 悔改하고 또 悔改하였다.……이렇게 哀痛하는 中에 밤이 얼마나 지났던지 울며 四十里길을 걸으니 새벽에 집에 돌아갔다. 방바닥에 쓰러져 눕고 있는지 얼마만에 非夢 似夢間 큰 불덩이가 떨어져 가슴에 콕 안기우는지라.……벼락이 아니라 불 洗禮였다. 이때부터 先生은 罪를 甚히 무서워하고 죄를 甚히 미워하고 예수 의 피로 贖罪함을 믿었나니 이것이 先生의 重生하던 날이다.……어떤 宗教의 天才라도 이 經驗이 없이는……金益斗를 알 수 없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중생의 경험이후 김익두는 또다시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의 장면을 성경에서 읽고 자신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여 영적체험을 가지게 되었다.⁵⁹⁾ 계속해서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그가 금식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신비한 광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주위를 맴돌더니 형용할 수 없이 환하고 밝은 빛이 전신을 휩싸며 그를 사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경이로운 감각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지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그 순간 사방이 번쩍하더니 달 같이 둥근 불덩어리가 익두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온 몸이 불덩이가 되는 것처럼 뜨거움이 일었습니다.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아멘!”⁶⁰⁾

이러한 중생의 영적체험이 있는 뒤에 김익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김익두의 변화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은 김익두가 예수 도깨비에 홀려서 실성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⁶¹⁾ 그러나 김익두

56)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198쪽.

57)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34~35쪽.

58) 鄭寅暎 編, 『金寅瑞著作全集』 5, 100, 쪽.

59) 엄두섭, 『좁은길로 간 사람들』, 188쪽.

60)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39쪽.

61) 박용규, 『신앙이 위대한 순교자들』 (서울: 한조문화사, 1977), 40쪽

는 결국 그가 28세가 되는 1901년 7월 마지막 주일⁶²⁾에 소안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매서인(賣書人)⁶³⁾이 되었다.⁶⁴⁾

이후 김익두는 송정신 여사(女士)의 권유로 재령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게 되었다.⁶⁵⁾ 그러던 중 마침 마땅한 담임 교역자가 없었던 재령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김익두를 담임 조사(助師)⁶⁶⁾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김익두는 그 당시 서울의 큰 약국에서 월급 150원의 보수를 줄터이니 상경하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한달 사례비 30원의 재령읍 교회로 부임하는 것에 서슴치 않았다.⁶⁷⁾ 김익두 조사는 재령읍에 부임함과 동시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령읍에 있던 어린이들은 모두 재령교회로 모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김익두 조사의 당시 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한국교회 백년사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역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년 여름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깨우치는 그런 일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오락과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맛있는 간식으로 집회시간을 메꾸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김익두 전도사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학생부 수련회나 부흥회에서도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며 집회때마다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⁶⁸⁾

위에서 보여진 이러한 역사에 힘입어, 결국 1년이 못되어 재령교회는 남자 10명, 여자 30명, 주일학교 학생 50명의 교회가 되었다.⁶⁹⁾ 이렇게 김익두 조사가 재령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문은 소안련 선교사의 귀에도 들렸다. 이후 김익두는 소안련 선교사의 간곡한 부탁에 소안련 선교사가 있는 신천읍교회에 동역전도사로 부임하는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김익두 조사는 소안련 선교사의 부탁으로 신천읍교회를 홀로 전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김익두는 신천의 김익두가 되었다.⁷⁰⁾ 이때 김익두 전도사는 입산(入山) 금식기도를 하면서 최소한 3명의 성도를 허락하기를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1년 6개월만에 3명의 성도를 결신하게 되었다.⁷¹⁾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얼마 후에는 교회가 30명으로 부흥되었으며 급기야 만 2년 남짓한 햇수로 3년째 되던 해에는 출석교인이 무려 300명에 이르는 큰교회가 되었다.⁷²⁾ 이때 모여드는 교인들에 대하여는

62) 김익두의 수세일자에 대하여는 보통 그가 기독교에 입신한 해인 1900년도 인 것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인 것 같다. 원래는 김익두가 기독교에 입신한 그해 7월에 세례를 받기로 하였으나 집례자인 소안련 선교사가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었기에 세례받을 영혼의 준비기간을 1년 정도 가지고 이듬해 7월에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41쪽.

63) 한국의 초대 교회사에서는 권서(勸書) 또는 매서(賣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권서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보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일컬음이고, 매서란 성경책을 팔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일컬음이다.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13쪽.

64)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199쪽

65)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p. 231, 288.

66)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직분명이다. 영어로는 Helper 라고 쓴다. 관례상 한자로 助師로 기록되고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助事가 맞는다. 한국인 목사가 대거 양성되기 전 선교사들을 도와 교역일선에서 직분을 맡아 수행했던 이들을 총괄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정규적인 신학교육은 없지만 선교사의 전도, 치리, 순회심방 등의 일체활동을 보좌하고 혹은 단독으로 조직교회이나 미조직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한국 장로교회의 조직이 강화되고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이 조사제도는 쇠퇴했으며 그후 1930년에 간행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도 교회직원란에 조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항목, 조사, 『基督教大百科事典』13권 (1984)

67) 박용규, 『韓國教會人物史』(서울: 信望愛社), 198쪽.

68)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46쪽.

69)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41쪽.

70) 최현, 『대부흥사 김익두』, 81~85쪽

71) 3명의 결신자 중 첫번째 성도는 반신불구(半身不具)의 여자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두번째 결신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는 각설이 거지였으며 다시 6개월이 흐른 뒤에 새로운 1명의 성도가 출석하여 3명의 성도를 얻었다. 도합 1년 6개월만에 결신자 3명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47쪽

72)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44쪽,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300여명의 신자가 주일날이면 구름같이 모여 들었음으로 가건물을 지어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마저 곧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초기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황무지 같은 신천읍에 300여명의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역시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했습니다.⁷³⁾

훗날 김익두 목사는 자신의 설교시간을 통하여 신천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흥역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한마디 하기로 하자. 내가 신천서 전도인으로 있을 때, 장날마다 전도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나 몹시 욕을 하는지 그 욕 한마디가 쌀 한 알씩이라면 쌀 몇섬이 될지 모르겠다. 어떤이는 돌맹이로 때려서 갓(구한국 때 쓰던 모자) 꼭 대기를 뚫어 놓았다. 어떤 날은 한 키 큰 사람이 물바가지로 가지고 와서 끼얹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먹살을 잡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들 욕만 했지, 열달 동안이나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아니 믿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 세 사람만 믿게 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 이튿날 전도하는데, 어떤 총각이 믿겠다고 했다. 또 눈 가죽이 뒤집힌 여인이 예수 믿겠다고 했다. 어찌 기쁘던지! 누님같이 가르쳐 주었다. 또 상투쟁이 네 사람이 믿겠다고 나섰다. 또 다섯 사람, 열 사람……. 하나님께 세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30인이자 주셨다. 2~30인이 300명이 되고, 지금은 8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다. 거기서 목사가 열 한 사람이 생겼다. 얼마나 이상한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이야기는 펍 많이 있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다.⁷⁴⁾

이처럼 헌신적인 목회활동을 보인 김익두 전도사는 金益斗의 信川이요, 信川의 金益斗였다.⁷⁵⁾라는 표현처럼 신천에서 시작했으며 결국 신천에서 순교(殉教)하였다.⁷⁶⁾

■ 목사안수부터 목사활동 중지 전까지

김익두 전도사는 그가 33세가 되는 1906년에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38세가 되는 1910년에 우종서 외 27명과 함께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제3회로 졸업하였다.⁷⁷⁾ 김익두 전도사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점에 있어서는 소안련 선교사와 고영복 목사의 후원이 지대하였다.⁷⁸⁾ 이렇게 김익두 전도사는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정규적인 신학공부를 마쳤다.⁷⁹⁾

73)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50쪽.

74) 이성호, 『金益斗 牧師 說教- 略傳集』, 12쪽.

75) 鄭寅暎 編, 『金寅瑞著作全集』 5, 103쪽

76) 김익두 목사는 처음에 신천읍교회에서 시무하였고 도중에 남대문교회, 승동교회, 직전리교회로 옮겨 다니며 목회하였다. 신천읍교회는 후일에 동부교회와 서부교회로 나뉘어 졌으며 김익두 목사는 마지막에 본 교회인 신천서부교회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담임 목사로 시무하였다.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53쪽

77) 1910년 6월 / 1907년 6월 20일에는 신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길선주(40세), 방기창(58세), 서경조(58세), 송인서(40세), 양전백(39세), 이기풍(40세), 한석진(41세) 등 7명이다. 이들은 그해 9월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첫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감리교는 1901년 김기범 김창식 두 사람을 '집사 목사'로 안수하였으나, 장로교회는 1907년 9월 17일 비로소 목사를 배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한국 장로교회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08년에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으나 1909년(제2회)에는 8명을, 1910년(제3회)에는 27명을, 1911년(제4회)에는 15명을 배출했다.

78)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28~32쪽.

79) 김익두 목사가 평양 신학교 시절에 남긴 일화에 대하여는 박금출, 『부흥사와 목회자의 실화사전』 제1집, 325쪽.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46쪽. 李贊英, 『韓國基督教會史總覽』, 451쪽.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24~42쪽을 참조할 것.

김린서 목사는 김익두 전도사의 신학생 시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평가하였다.

이로써 보면 先生의 神學生 生活은 街頭傳道 逢乞救濟 悔改猜忌 與衣愛友 密室祈禱였나니 이것은 重要的 神學 科目인가 하노라. 以上 五課가 缺하여서는 如何한 學問이라도 能力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先生은 學課 成績이 不良한 것도 아니다. 聖經 正科는 이미 滿點이요 拔群의 聰明을 가진 先生은 다른 學課도 優秀成績으로 工夫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⁸⁰⁾

이렇게 신학생 시절을 보낸 김익두 조사는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1912년 12월 5일에 신천교회의 청빙으로 당시 독노회(獨老會)였던 황해노회 제3회 정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⁸¹⁾ 이때 그의 나이 39세였다. 이후 김익두 목사가 시무하는 신천교회는 700명을 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헌금⁸²⁾으로 신천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였다.⁸³⁾ 김익두 목사가 신천교회를 건축하는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여기 저기 교회가 일어나는 동시에, 근거지(根據地)인 신천읍(信川邑) 교회는, 3인에서 30인에 달하고, 한 부자(富者)가 800원을 연보함으로써, 집을 사서 예배당을 삼고, 일변(一邊)학교를 설립(設立)하니, 이것이 신천 신교육(新教育)의 효시(嚆矢:始作)였다. 불과 몇해에, 30인은 300인으로 증가하니, 전(前) 예배당 가지고는 용납(容納)할 수 없어, 새 예배당을 구하여 기도하고 연보궤(捐補櫃)를 만들어 놓고서 무기명(無記名)으로 헌금(獻金)케 했더니, 얼마 안되어서, 천원(天圓)에 달(達)했다.⁸⁴⁾

위와 같은 도움을 힘입어, 결국 김익두 목사는 1913년, 그의 나이 40세에 신천교회당 건축을 마쳤다. 그가 목사안수 받은지 1년만의 일이었다.⁸⁵⁾

후에 신천교회는 놀라운 부흥성장에 의하여 신천서부교회와 신천동부교회로 나뉘게 되었는데⁸⁶⁾ 김익두 목사는 신천서부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게 된다.⁸⁷⁾

김익두 목사의 목회활동은 한마디로 말씀중심의 목회활동이었다.⁸⁸⁾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김익두 목사는 신·구약성경 66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신약은 1,000번 정도 독했고 구약은 100독을 독파했는데 평상시 암송하는 구절로 100구절 정도는 늘 외우고 있었습니다. 신·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언제나 그의 머릿속에 충만하여 수시로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 나왔고 그의 손에는 항상 성경책이 들리워져 있었으며 무슨 대화에 임하든지 반드시 성경책을 펴 놓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대화중엔 성경을 인용했고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었습니다.⁸⁹⁾

80)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105쪽.

81)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54쪽

82) 이씨 노인은 신천지역의 구두쇠로서 소문이 난 노랭이였으며 가장 큰 부자였다. 그는 김익두 목사가 신천서부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헌금을 모금할때 비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의 헌신에 감동하여 건축예산의 거의 반액을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바친 인물이다. 훗날 그 노인은 기독교에 입신하였고, 그의 후손인 손자 이강주씨는 1988년도에 의정부 교회에 회계 집사로 헌신한 사람이다. 박용규, 『김익두목사 전기』, 49쪽, 김익두 목사의 안수기도에 병고침을 받은 한 노인이 병고침 받은뒤 감사헌금을 건축헌금과 함께 바친 일화도 있다.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김익두 목사』, 48~49쪽.

83) 김익두 목사의 신천교회는 처음에 김익두 목사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다. 후에 화재로 타다 남은 작은 헛간을 빌어서 예배당으로 개조하였으며, 교회가 부흥한 뒤 본격적인 교회건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48~49쪽.

84) 이성호, 『金益斗 牧師 說教- 略傳集』, 166쪽.

85)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49~50쪽

86) 교회가 나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고(故) 김린서 목사가 직접 신천에 가서 알아 본 결과 김익두 목사의 목회적 실추(失墜)로 인한 교회분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교회(大教會)의 정식분립(正式分立)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鄭寅暎 編, 『金麟瑞牧師全集』 5, 107쪽

87) 배상길, 『빛을 남긴 위인들』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188쪽.

88) 최현, 『대부흥사 김익두』, 86~88쪽.

김익두 목사의 일반적인 일과 중에는 대체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6시부터 약 두시간 정도를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항상 마루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은 자세로 기도했고 8시부터는 1시간 30분정도 성경을 읽었는데 대개 신약성경을 매일 7장(章)씩 읽어 나갔습니다.⁹⁰⁾

위의 묘사와 일맥상통하게, 김린서 목사도 이와 같은 김익두 목사의 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당시 老信者에게, 선생의 特徵을 물으니 「우리 김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교인을 많이 사랑하며,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고 한다. 復興講壇의 金益斗는, 獅子같은, 敎회의 金益斗는 慈父였던 것이다. 알만하다. 24년 목회의 秘訣이, 祈禱와 사랑, 그리고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다.⁹¹⁾

이러한 평가는 확실히 김익두 목사가 교인들이 증언할 정도로 말씀중심의 목회를 보였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또한 김익두 목사는 사랑이 넘치는 온화한 성품의 목회자였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목회였던 것이다. 추운 겨울 평양 산정현 교회의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기 위하여 평양역으로 향하던 중 거지 할머니를 보고 김익두 목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겹옷을 비롯하여 김밥과 찢계란을 주며 기도해 주기도 하였고,⁹²⁾ 신천교회의 고집사가 보증을 잘못 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눈 20마지기를 팔아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⁹³⁾ 그러나 이러한 김익두 목사도 사랑의 목회자였지만 반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는 추상같이 호령하는 엄한 목회자이기도 하였다.⁹⁴⁾

위에서 본 데로, 흔히 우리는 김익두 목사가 행했던 신유이적(神癒異蹟)의 부흥회에만 많은 강조점을 두어 그의 말씀중심과 사랑의 목회활동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위의 여러 가지 인용문에서 본대로 기도, 사랑, 말씀이 충만했던 목회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민경배 교수는 김익두 목사의 목회를 설명할 때 전후 28년에 걸친 그의 신천교회의 목회 모형은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성결이었다. 라고 묘사하였다.⁹⁵⁾

이후, 김익두 목사는 1915년에 황해노회 제9대 노회장(老會長)에 피선되었으며,⁹⁶⁾ 1920년에는 한국장로교회 제9대 총회장(總會長)으로 선임되었다.⁹⁷⁾ 이때 많은 목사들이 깡패가 총회장이 되었다고 수군수군 거리는 패들이 있었고 반대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예로 들면서 긍정적으로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⁹⁸⁾ 또한 무엇보다도 김익두 목사는 한국교회 백년사에 길이 빛나는 부흥사였다.⁹⁹⁾ 총회장에 선임된 후 김익두 목사는 1920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0일까지 10일 동안 7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그 7교회는 승동교회, 새문안교회, 연지동교회, 왕십리교회, 남대문교회, 안동

89) 한춘근, 「죽지않는 순교자 김익두」, 64쪽

90) 위의 책, 66쪽.

91) 鄭寅暎 編, 「金麟瑞著作全集」 5, 106쪽.

92)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19~22쪽.

93) 위의 책, 60~64쪽.

94) 위의 책, 54~59쪽

95) 閔庚培, 「日帝下の 韓國基督教 民族·信仰運動史」, 294쪽.

96) 韓國教會史學會 編, 「朝鮮 예수敎長老會史記」 下 (1968), 148쪽.

97) 엄두섭, 「좁은길로 간 사람들」, 189쪽.

98) 金春培, 「韓國基讀敎受難史話」, 318쪽.

99) 鄭聖久, 「韓國敎會 說敎史」 (서울: 종신대출판부, 1986), 129쪽. 김익두 목사에게서 볼 수 있는 부흥사로서의 생애와 신유이적에 대한 평가는 본 논문의 III. 김익두 목사의 신유부흥운동에 대한 이해를 참고할 것.

교회, 저동교회였다. 이 7교회 연합 부흥회는 안동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총회가 김익두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산회(散會)한 후 위에 언급되어진 7당회인 이 7교회가 총 연합하여 모두 10일간 총회장이 된 김익두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¹⁰⁰⁾ 이때 김익두 목사는 10일 내내 금식(禁食)을 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그 10일 부흥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금식을 하지 않는 금식부흥회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10일 부흥회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았다. ① 오전 5시 새벽 기도회, ②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경회, ③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인 가정심방, ④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직원을 위한 집회, 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부흥회였다.¹⁰¹⁾ 그리고 이 10일 부흥회를 통하여 특별히 소문이 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① 직원회개 운동, ② 병고침의 치유(신유) 운동, ③ 금품헌물 하기 운동이었다.¹⁰²⁾ 김익두 목사는 이 7개 교회 연합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1920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속하여 대구 남성정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경산, 현풍지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왔다고 한다. 김익두 목사는 이때도 역시 계속하여 금식부흥회로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 부흥회로 인하여 생긴 헌금으로 힘을 잃었던 계성 중학교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⁰³⁾

그 후 김익두 목사는 1922년에 남대문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1927년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1927년 남대문교회를 사임하게 된다.¹⁰⁴⁾ 그 뒤 1935년도에 김익두 목사가 승동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할때까지 약 8년간의 목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그냥 지속적인 부흥회를 인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후 김익두 목사는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목회금지령을 받을 때까지 승동교회에서 약 3년 6개월정도 목회를 하였다.¹⁰⁵⁾

■ 목사 활동 중지부터 순교 전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신사참배(神社參拜)강요의 시기가 있었다.¹⁰⁶⁾ 일제(日帝)의 신사참배 강요는 기독교 박해 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말살전략(韓國民族抹殺戰略)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¹⁰⁷⁾ 일제의 이러한 신사참배 강요는 중경 총회장이요, 조선의 대표적 신유부흥사인 김익두 목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수난이었다.

신사참배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던 김익두 목사는 65세이던 해인 1938년 종로 경찰서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은 후 거의 사경을 헤메는 모습으로 석방되었다.¹⁰⁸⁾ 결국 1938년 12월 28일 엄동설한(嚴冬雪寒)인 때, 김익두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일제의 강요에 의해 목사활동을 금지당했다. 결국 김익두 목사는 1935년 7월 8일에 승동교회 제8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약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승동교회를 일본 경찰의 압력하에 떠나야만 했다.¹⁰⁹⁾ 김익두 목사는 그 뒤 황해도 은율군

100)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65~66쪽.

101) 이러한 시간표는 1933년 5월 19일부터 있었던 새문안 교회의 부흥회 시간표와 비슷하다. 위의 책, 68쪽.

102)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96~101쪽

103)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67쪽.

104) 남대문교회에서 볼 수 있는 김익두 목사의 활동에 대하여는 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서울: 三和印刷所, 1979), 129~40쪽을 참조할 것.

105) 趙寅穆, 金益斗의 復興運動과 信仰樣態에 關한 研究, (민간행 신학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17쪽

106) 일제의 신사(神社)에 대한 이해와 종교정책을 통한 참배의 강요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교회가 당했던 수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南植, 『神社參拜와 韓國教會』 (서울: 새문출판사, 1992), 95~184쪽, 김수진·주명중, 『일제의 종교탄압과 한국교회의 저항』 (서울: 쿤란출판사, 1996), 38~52쪽, 김승태,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서울: 다산글방, 1944), 9~283쪽,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494~546쪽, 閔庚培, 『韓國基督敎會史』 신개정판, 478~511쪽, 이현희, 『이야기 한국사』, 571쪽, C.D. Foulton, *Star in the East* (Richmond: John Konx Press, 1948), p. 195, D.C.Holton,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Corp., 1963), p. 168, Nam Sik Kim, *A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Jackson: Reformed Academy, 1985), p. 394. Raymond Hammer, *Japan's Religious Fer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 31. quoting from S. Arima, "The Soul of Japan," *Contemporary Japan*, V(1936~7), p. 70, Otis Cary,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Japan: Protestant Missions* (New York: Fleming H. Revel Co., 1909, Republished, 1970), pp. 212f, 을 참조할 것

107) 金南植, 日帝의 思想統制와 韓國教會의 變節, 『神學指南』, 第54卷 2집, Vol 212, (1987, 여름호), 184~85쪽.

108) 최혁, 『대부흥사 김익두』, 117~27쪽

109) 金南植, 日帝의 思想統制와 韓國教會의 變節, 『神學指南』, 80~81쪽.

직전리의 외딴 촌락에서 과수원을 일구며 생활하였고,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의 7년동안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¹¹⁰⁾

그러나 이 당시 교계에서는 김익두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 한국교회역사가 (韓國教會歷史家)에게 있어 김익두 목사의 생애 중 그가 신사(神社)에 참배(參拜)하였다는 역사적 오록(誤錄)을 제대로 정립하여 두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¹¹¹⁾

그러면 진정 김익두 목사는 신사에 참배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무척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김 목사의 생애 중 그가 신사에 참배하였다,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가장 큰 별론이요, 화젯거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¹¹²⁾

그러나 1938년 종로 경찰서에서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고,¹¹³⁾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김익두 목사였다.¹¹⁴⁾ 훗날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이후 평양 신학교 강당에서는 이북 5도 목사들이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하였던 과거의 죄악을 참회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익두 목사는 이날 개회예배의 설교를 행하면서 분명히 나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¹¹⁵⁾ 이 때 출옥한 목사인 채정민(蔡廷敏) 목사가 지팡이를 들고 단상에 뛰어 올라가 소리를 질러대며 김익두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려 하였다. 그 때 김익두 목사는 조용히 웃으면서 “형님! 내려가십시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말로 하십시오.” 하니 다른 동료 목사들이 채목사에게 독려(督勵)하여 김익두 목사의 설교는 계속되었고 이 날의 부흥회는 시종 눈물과 회개가 넘치는 집회로 끝이 났다고 한다.¹¹⁶⁾

신사참배 문제에 대하여 김정묵 목사는 김익두 목사를 다음과 같이 변호하고 있다.

나는 김 목사님의 수제자요, 또 8촌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김 목사님이 신사에 참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 목사님과의 사이에 암초가 있는 사람들이다. …… 만일 김 목사님이 신사에 참배를 했다면 왜 함구령을 내려 과수원으로 쫓아 성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겠느냐? 김 목사님은 신사 참배에 거절하였기에 옥중 생활보다 더욱 안타까운 병어리가 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 세상이 김 목사님에게 신사에 참배했다는 무서운 죄명을 씌우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¹¹⁷⁾

죽음을 각오하면서 일경 앞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해방 후에는 신사참배를 참회하는 평양 신학교 집회의 주장사로 초빙¹¹⁸⁾ 되어진 모든 정황을 인식할 때, 김익두 목사의 신사참배를 사실화 시켜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김익두 목사가 단지 신사에 끌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기 때문이다. 일단 김익두 목사 자신은 공석에서 자신이 신사에 강제로 끌려간 것은 시인하였으나, 신사참배한 것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김익두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글을 살펴보자.

이로 보건대 김익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첫째 그의 평소 신념과 신앙적인

110) 최혁, 『대부흥사 김익두』, 128쪽

111)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42쪽.

112) 김익두 목사의 신사참배여부에 대한 문제는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203쪽의 각주 7)번과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41쪽을 각각 참조할 것

113) 閔庚培, 『教會와 民族』,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1), 393~94쪽.

114)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77쪽.

115) 최혁, 『대부흥사 김익두』, 132쪽.

116)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박용규 목사가 그 당시 그 집회에 참석하였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에 근거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43~44쪽.

117) 위의 책, 145쪽에서 재인용.

118) 배상길, 『빛을 남긴 위인들』, 190쪽.

태도가 그러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것이었음으로 미뤄 볼 때 그러하며, 셋째는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부인하였음이고, 넷째는 당시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회개하며 새롭게 은혜를 받는 집회에 강사로 초빙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며, 다섯째로 그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고, 여섯째는 그가 신사참배를 하였다는 신의주 집회를 마친 후 그는 오히려 함구령에 묶여 황해도 은율군 장연면 중흥리로 쫓겨나 교회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¹¹⁹⁾

이처럼, 위의 인용문은 6가지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김익두 목사의 신사참배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로 보건대, 확실히 김익두 목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 1월 6일 김익두 목사의 아내 김익진 사모가 갑작스러운 병환(病患)으로 소천하였다.

이제 김익두 목사는 직전리 과수원에서 홀로 적적(寂寂)하게 살아가야 했다.¹²⁰⁾ 당시 그에게는 목회지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다.

김익두 목사가 72세가 되던 1945년 8월 15일 정오, 조선의 광복(光復)이 찾아왔다. 그때 그의 나이 72세였다. 김익두 목사는 이렇게 해방의 감격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직전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오래도록 쉬고 있던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¹²¹⁾

노령의 김익두 목사가 직전리 교회에서 목회를 재개하고 있을 때, 1946년도에 신천서부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를 재청빙하였다. 신천서부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를 담임목사로 재청빙했던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다.

신천서부교회는 김현준 목사의 후임으로 누구를 청빙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여러날의 심사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김익두 목사를 다시 청빙하기로 가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가 비록 72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그의 일생의 업적과 능력, 그리고 그가 개척하고 친히 세운 신천서부교회로 다시 돌아와 필생의 복음 사역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김익두 목사가 담임하던 1913년 당시에 건축했던 현재의 건물이 벌써 33년이 지나갔으므로 다시 신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기왕이면 처음 지은 이가 헐고 다시 새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¹²²⁾

결국 김익두 목사는 25년만에 다시 신천서부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¹²³⁾ 1947년 신천서부교회에서는 김익두 목사의 위임식(委任式)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익두 목사는 두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¹²⁴⁾ 이때 그의 나이 74세였다. 그리고 그가 75세 되는 해인 1948년에는 황해도 회주교회로 김익두 목사의 성역(聖域) 4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예배와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졌

119) 김안식, 김익두 목사의 설교사역에 대한 분석과 평가,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9), 35쪽.

120)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83쪽.

121)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46~147쪽.

122)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86쪽.

123) 신천서부교회의 역대 담임목사는 초대목사에 김익두 목사였고, 그 뒤에는 김석조, 최상식, 유만섭, 유원봉, 정원형, 김정하, 김현준 목사들이 역임했다. 북한교회재건위원회 편,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 (서울: 도서출판 진리와 자유, 1995), 351쪽

124) 필자는 1998년 12월 14일(월요일) 오후 2시경~5시경까지 이태선 원로목사의 사택에서 김익두 목사의 행적에 대한 몇가지 증언을 들었다. 이태선 목사는 1998년 당시 수원제일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있었으며, 아동문학활동가였고, 김익두 목사가 신천서부교회 목회당시 1년 6개월 정도 부목사로 시무했었다고 한다. 그는 김익두 목사와 함께 부흥회를 다녔고, 그의 주일 설교원고를 대필(代筆)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김익두 목사는 노년에 재혼을 하였는데 60세 가량된 부유한 가정의 여자와 재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사참배문제에 있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해방 뒤 김익두 목사가 순교하기 전 공산당이 김익두 목사를 신천경찰서로 체포해 가서 1주일 동안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김익두 목사는 교회로 돌아와 이태선 목사에게 이제는 아내 차레가 되었으니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어서 빨리 3·8선을 넘어 이남으로 내려가 통일을 준비하게. 라고 하면서 손수 이삿짐을 꾸려주며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고 한다. 이태선 목사는 자신이 기억하는 김익두 목사의 모든 행적을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라는 책을 통하여 후대 사료로 남겼다.

다. 바로 이날 기독교도연맹(基督教徒聯盟)¹²⁵⁾과 관련있는 강양욱(康良煜) 목사¹²⁶⁾가 그의 부인과 함께 참석하여 그날의 분위기를 돋우었다고 한다.¹²⁷⁾

강양욱은 김 목사의 제자인 한편, 김일성의 친인척¹²⁸⁾이며, 김일성 정권의 서기장까지 지낸 바 있는 기독교의 배신자, 즉 마귀의 자식이요, 멸망의 선봉자였다.¹²⁹⁾ 이러한 표현이 말해주듯이 강양욱은 앞으로 펼쳐질 김익두 목사의 후반기 생애에 있어 가장 가슴아프고 애석한 삶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방 이후 이북 땅에는 김일성 정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며 통치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은 당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강양욱을 주축으로 내세워 기독교도연맹이라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어용단체를 만들어냈다.¹³⁰⁾ 김일성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이러한 술책을 쓴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38이북을 평양 신의주 선천 사리원 재령 기타 중요 도시가 기독교화하였고 농촌까지 기독교가 중심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의 최고강적은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를 약화시킴에는 총칼같은 무력보다 기독교의 목사를 이용하여 이전제전격(以錢制錢格)으로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소멸하자는 흥계로 기독교도연맹(基督教徒聯盟)을 조직한 것이 사실이다.¹³¹⁾

이러한 어용단체를 만든 강양욱은 교계의 목사들을 찾아다니며 거짓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김익두 목사가 있었던 것이다.¹³²⁾ 사실 김익두 목사가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은 강양욱의 교활한 농간과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의한 것이었고 철저히 조작된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¹³³⁾ 김익두 목사는 항상 강양욱에게 강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법도 밖에서 일하면 안되요. 공산주의를 조심하시요. 목사는 정치에 가담하지 말고 강단을 지켜야 하오. 강단을 떠나면 멸망이요. 라고 타일렀다고 한다.¹³⁴⁾

1948년 강양욱은 신천서부교회에서 요한계시록 3장 7절~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¹³⁵⁾ 그 설교가 끝날 때 즈음에 그는 김익두 목사와는 사전의논(事前議論)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 장군과 북한정권이 김익두 목사를 존경하고 있으며 이번에 김익두 목사를 기독교도연맹의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되었다고 교인들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러한 선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 선언은 의도적인 폭탄선언으로써 김익두 목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강양욱의 교활한 책략이었다. 그 리고 그는 설교를 마치자 마자 당회실에서 그 선언에 대한 내막(內幕)을 물으려는 김익두 목사에게 “목사

125) 기독교도연맹의 창립배경과 활동 그리고 기독교도연맹의 4대 강령에 대하여는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96~401쪽을 참조할 것

126) 강양욱은 평양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943년에 제38회로 졸업하였다. 후에 1944년 평양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는 신학교시절부터 신학공부나 신앙생활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이 많았으며 항상 학생운동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평양노회에서는 그를 기독교의 커다란 독초(毒草)로 묘사하고 있다. 평양노회사편찬위원회, 『평양노회사』 (서울: 푸른초장, 1990), 321쪽.

127) 필자는 1999년 7월 15일(목)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한춘근(韓春根) 목사의 사택에서 김익두 목사의 기독교도연맹가입 문제와 강양욱과의 만남 그리고 김익두 목사의 순교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듣고 녹취(錄取)하였다. 한춘근 목사는 김익두 목사가 순교하기 5년 전부터 고(故) 한태선 장로(전 광성교회 장로)와 더불어 김익두 목사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사람이다. 한춘근 목사는 그의 나이 20대에 김익두 목사의 순교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目睹)한 유일한 생존증인(生存證人)이며, 강양욱과 김익두 목사의 관계와 만남에 대하여 증언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김익두 목사의 전기인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서울: 성서신학서원, 1996)의 저자이다. 그는 면담 당시 60세가 넘는 나이였고, 예정합동측 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강양욱은 그의 부인과 함께 김익두 목사 성역 40주년에 와서 독창을 하였고 그의 노래실력은 대단했다고 증언했다. 이하(以下) 한춘근 목사의 증언에 따른 기록은 한춘근 목사의 증언으로 표기한다.

128) 강양욱이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으나 사실은 그의 외할아버지 강돈욱(康敦煜) 장로의 육촌동생이었다.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563쪽의 각주 19)번에서 재인용.

129)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47쪽.

130) 김일성이 강양욱을 앞세워 기독교도연맹을 발족(發足)하게 한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는 1987년 6월 24일자 『平壤新聞』에 잘 나타나 있다. 金光洙, 『北韓基督教探索史』, 198쪽

131) 계창주, 북한 기독교도연맹의 정체,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337쪽.

132) 김익두 목사가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공식적인 문건에 대하여는 서정민, 해방전후의 한국기독교계 동향, 『基督教思想史』 제29권 (1985. 8), 34쪽을 참조할 것.

133) 金光洙, 『北韓基督教探索史』 (서울: 基督教文社, 1994), 201쪽.

134) 심근식, 『한국교회 인물 25인 약사』 (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3), 86쪽.

135) 한춘근 목사의 증언.

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시다. 그래야 북한에서 교회가 살디요.”¹³⁶⁾라고 얼렁뚱땅 대충 다른 핑계를 대고 급히 당회실에서 나가 돌아갔다. 그리고 그후부터 강양옥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대남방송에 신문과 광고, 강연등을 통해서 김익두 목사가 기독교도연맹의 위원장이며 북한의 중앙대의원이라는 사실이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로서는 이를 해명(解明)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가 없었다.¹³⁷⁾ 결국 김익두 목사는 『한국선교회신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해명서를 써내기도 하였다.¹³⁸⁾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김익두 목사는 강양옥의 농간에 넘어가 김일성 괴뢰정권에 협력하는 어용목사(御用牧師)로 인식되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절개를 실추시킨 배교자(背教者)로 평가되기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¹³⁹⁾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이 보낸 강양옥을 통하여 한국전쟁 6·25 한해 전인 1949년 5월 5일에 북한 노동절 경축행사에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받았다. 김익두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한태선 집사¹⁴⁰⁾와 많은 의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한태선 집사와 더불어 연설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춘근씨가 그 원고를 백지에 대필하여 김익두 목사에게 주었다.

김익두 목사는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7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였다고 한다.¹⁴¹⁾

마침내 1949년 5월 5일 김익두 목사는 평양 만경대 운동장에서의 노동절 경축식때 연설을 하게 되었다. 이때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 김두봉, 최용진, 강양옥과 같은 북한 정부 최고 수뇌부(首腦部)와 만났고 귀빈석에 자리잡았다.

이 자리에서 김익두 목사는 연설이 아닌 설교를 하였으며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었다. 그 강단 바로 뒤에 김일성이 앉아 있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온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네.”라고 말하자 김일성은 “목사가 목사 냄새 났으면 잘된 것이디요.”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김익두 목사는 복도에서 김일성과 만나 악수를 하면서 “자네는 언제 예수를 믿을라나?”라고 묻자 김일성이 화통하게 웃으며 “이제 잘 믿어야지요.”하고 대답했다고 한다.¹⁴²⁾ 이자리에 한태선 집사도 같이 있었다.¹⁴³⁾ 그 당시 김일성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도한 목사는 김익두 목사 뿐이었다.¹⁴⁴⁾ 1949년 5월 5일에 만경대 노동절 경축식장에서의 김익두 목

136) 위의 증언.

137)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87~91쪽

138) 한춘근 목사의 증언.

139) 閔庚培, 『教會와 民族』, 433~34쪽.

140) 고(故) 한태선씨는 김익두 목사가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한 이천실씨의 남편이며 김익두 목사와 같이 신천서부교회에서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신앙생활한 사람이다. 그는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따라다니며 성가독창을 하였었고, 월남 후에는 천호동 광성교회(김창인 목사 시무)의 장로로 시무하였었다. 그는 평양 만경대 노동절 경축식에도 김익두 목사와 같이 참석하였었고, 그 위조작업에 대한 진상을 모두 밝힌 역사의 증인이었으며, 한춘근 목사가 김익두 목사의 전기를 쓸때에 많은 증언과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다.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247~49쪽

141) 위의 책, 92~93쪽

142) 한춘근 목사는 이 내용을 한태선 장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143) 필자는 1998년 11월 9일(월)에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한경은 권사와 전화를 이용한 면담을 통해 김익두 목사의 행적에 대한 몇가지 증언을 들었다. 한경은 권사는 1998년 현재 예방통합 서울 관악노회 남현교회 권사이다. 김익두 목사가 괴뢰군에게 순교할 당시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신 그녀의 아버지 한태선 장로(前 천호동 광성교회 원로장로)는 김익두 목사 순교 당시 김목사의 순교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또한 한경은 권사의 어머니 이천실 권사는 김목사가 시무하던 신천 서부교회의 여전도회 회장이었으며 김익두 목사가 순교하던 새벽에 같이 순교당한 교인들 중 한명이다. 한경은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이북 평양에서 개최된 만경대노동절경축행사에서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을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직접 들었다고 한다. 그때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에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 할 수 없었네. 라고 말했으며, 계속하여 김일성에게 자네는 언제 예수를 잘 믿을라나? 라고 질문을 했고 김일성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허허, 이제 잘 믿어야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익두 목사와 강양옥과의 만남에 대한 증언에서는 김익두 목사 성직 40주년 기념식을 신천서부교회에서 진행할 때 강양옥이 그 당시에는 보기드문 검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와서 김목사에게 고급양복, 구두, 모자, 금반지 등을 선물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144) 윤성화(1976년 당시 전남 애양원교회 목사) 목사는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 뿐만이 아니라 공산당원들을 전도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김익두 목사는 어느 여름날 조선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설교하며 옛날 중국 고대 임금의 사례를 설교하였는데, 공산당 내무서 간부 중에 한명이 그 설교에 감동하여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 그 설교내용을 김익두 목사에게 되물어 재기록한 적이 있었고, 김익두 목사가 한번은 김일성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인민회의 대의원의 자동차를 빌려타고 가면서 그 차에 동승한 대의원에게 그가 불쾌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전도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김익두 목사가 그당시 김일성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유일한 목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성화, 김익두 목사와 김일성, 『복된 말씀사』 23권 1호 (1976. 1): 51~53쪽. 한춘근 목사의 증언을 참조할 것.

사가 행한 언동(言動)은 이상이 전부였다.¹⁴⁵⁾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평양방송에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연설이 방송되었다. 연 일주일 동안 방송된 김익두 목사의 설교 내용은 그가 행한 설교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위조(僞造)되어 연일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당연히 북한 정권의 위조 조작된 녹음방송이었다.

이 허위날조(虛僞捏造)된 녹음방송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으며 그 여파(餘波)는 김익두 목사의 명예에 뜻하지 아니한 치명적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말년의 김익두 목사는 이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계에서 쫓아지는 날카로운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¹⁴⁶⁾ 김익두 목사 역시 기독교도연맹의 총회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이다.¹⁴⁷⁾

이때의 김익두 목사를 두고 많은 후대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필자는 김익두 목사의 기독교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들의 다양한 평가를 우선 살펴 보려고 한다.

그의 말년은 비텐베르크성(城) 이후의 마틴 루터(M. Luther)에 비할 만큼 찬란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역사는 죄인(罪人)들의 역사요, 그 죄의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고 은총으로 구원받는 기록의 구속사(救贖史)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 있다.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¹⁴⁸⁾

그에게도 정권욕이니 금욕이 있어서 나섰다고 할 수도 없다. 어찌하든 북한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불가불 기독교 연맹쯤은 조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인하였던 것일 것이다.¹⁴⁹⁾

당시 서기장으로 있던 강양욱(康良煜)은 김목사의 제자인 까닭에 기맹(基盟)을 배경으로 총회를 만들고 김목사를 총회장으로 만들어 대남(對南) 비난방송을 하게 했다는데, 이는 김목사의 욕성을 다른 사람이 이남 정부를 비난케 한 사기극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결국 알고도 속고 속고도 속아 이용당한 셈이다.¹⁵⁰⁾

결국 김익두 목사는 그의 제자 강양욱의 농간에 넘어가 김일성 괴뢰정권에 협력하는 듯한 오해를 받게 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김익두 목사의 의도는 기독교연맹에 가입하여 괴뢰정권에 협력하는채 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한다. 고 말하였다.¹⁵¹⁾

이 때 김익두 목사와 노련한 김웅순 목사들은 기독교 연맹이 죄악의 단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름인 줄 우리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기회에 다시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하려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제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정신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응책을 세우며 후배목사들을 달랬던 것이다. 사실이다. 북한땅에서 잠시라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였다.……김목사가 강양욱이의 자가용을 타고 다닌 것은 사실이요 김일성이를 자주 만난 것도 사실이고 목사들 모임에서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자고 언변한 것도 사실이다.……김목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롭게 거침없이 전도하고 설교하였던 것이다.……이것이 월남해 온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말이다. 어떤 목사들은 김익두 목사의 숭고하고 보수적인 신앙과 교회만을 순결하게 지킬 줄 알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힘을 불끈 쥔다. 인간의 사고와 시야는 유한하니 김목사의 신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줄 아는 바이다.¹⁵²⁾

145)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94~98쪽.

146) 후일에 이 모든 일의 역사적 증인인 한태선 장로는 공산단의 허위 날조된 방송에 대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방송매체나 기독교방송을 통하여 그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였으며, 한태선 장로의 증언내용 녹취 테이프는 한춘근 목사가 보관하고 있다. 위의 책, 99~104쪽

147) 金光洙, 『韓國基督教再建史』(서울: 基督教文社, 1981), 55쪽의 각주 50번

148) 閔庚培, 『日帝下の 韓國基督教 民族·信仰運動史』, 296쪽.

149) 계창주, 북한 기독교도연맹의 정체,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339쪽.

150) 李贊英, 『韓國基督教會史總監』, 453쪽.

151) 박용규, 『韓國教會人物史』(서울: 信望愛社), 1965.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는 목사는 교회강단을 떠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교회분열을 또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익두(金益斗) 목사의 추태를 기록해야겠으나 제한된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참으로 기막힌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¹⁵³⁾

해방 이후에 김익두는 다시 북한 공산당의 강요 때문에 46년 11월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하였고, 49년 기독교도연맹 총회의 총회장을 맡게 되었다. 김일성의 외조부격인 전 목사 강양욱(康良煜)의 감언이설 때문이었으나 김익두 자신의 허물임에 틀림없다.¹⁵⁴⁾

이러한 문제가 있는 후 김 목사는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설 내용인 원고를 보이면서 원통한 일이라고 공산주의의 뻔뻔스런 만행에 분통을 터뜨리며 애석해 하였다. 신유산 교회 윤두환 목사는 김목사에게 이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필자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필자는 김익두 목사의 기독교 연맹 가입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입동기와 사상을 강조하려 것이다.¹⁵⁵⁾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해방이 된 후에 이북에서 강양욱(康良煜)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고 초대 총회장이 되어 그 명예에 흠칠을 하고 말았다.¹⁵⁶⁾

영광과 오욕! 찬사와 비난! 명예와 허물을 한몸에 지닌 채 살아가야 했던 인간 김익두! 죽음이후에도 논란되고 있는 김익두는 6·25전쟁 와중에서도 강단에 꿋꿋이 서서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뼈아프게 울고 있다. …… 남과같이 민족의식이 강하지 못했고 철저한 반공을 하지 못했던 그는 …… 공산당의 위협과 회유에 기독교연맹에 가담하였고 총회장으로 공산당에게 이용되었던 일을 생각하니 칠십 중반의 노인에게서 신음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¹⁵⁷⁾

이와 같은 여러가지 평가를 통하여, 일단 필자는 김익두 목사의 말년이 평탄치 않았으며 굴곡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한 사건이 한국교회의 신앙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오점(汚點)을 남기는 일이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¹⁵⁸⁾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순교를 부인하거나, 그의 업적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해석으로 김익두 목사의 기독교도연맹의 가입이 김일성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북민족의 전도를 보장받은 점에서 취하여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⁵⁹⁾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의 이러한 행적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논란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할찌라도, 우리는 그가 한때 하나님을 귀히 쓰셨던 한국교회의 인물이었음을 기억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정죄(定罪)하거나 배교자의 반열로 평가절하(平價切下)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맡겨야 할 것이다.

■ 순교와 장례식

김익두 목사는 1950년 10월 14일 토요일에 인천서부교회의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다가 77세의 나이로 공산당의 칼자루에 찢려¹⁶⁰⁾ 순교하게 되었다.

김익두 목사의 순교사화(殉敎事話)는 다음과 같다.¹⁶¹⁾

152) 박용규, 『신앙이 위대한 순교자들』, 204~5쪽.

153) 홍만춘, 북한정권 초기의 기독교와 강양욱,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370쪽

154) 민경배, 항목, 김익두, 『基督教大百科事典』 3권 (1984)

155)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49쪽.

156)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425쪽.

157) 이형근, 『한국교회 순교자』, (서울: 세신문화사, 1992), 97쪽

158) 閔庚培, 『日帝下の 韓國基督教 民族·信仰運動史』, 296쪽

159) 장병옥, 『6·25 공산침략과 교회』 (서울: 한국교육공사, 1983), 60~61쪽.

160) 대부분의 자료들에는 김익두 목사가 총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것은 오류인 것 같다. 그 당시의 순교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한춘근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익두 목사는 총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으며 공산군의 칼에 수차례 찢려 순교하였고, 그 증거로 김익두 목사의 선혈(鮮血)이 교회 벽과 강대상 벽에 세차게 튀었다고 증언했다. 그날 순교한 이천실 권사의 딸인 한경은 권사도 김익두 목사는 칼에 찢려 순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950년 10월 13일 밤 9시. 김익두 목사가 목회하던 신천지역에서 그 유명한 신천반공의거사건(信川反共義舉事件)이 발발(勃發)하였다.¹⁶²⁾ 이 반공의거의 대장 김봉선씨는 신천서부교회의 집사였기에 평소 이 거사(巨事)의 성공을 위하여 김익두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하였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이 반공의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¹⁶³⁾ 신천반공의거사건 이 일어나던 날 밤, 김익두 목사는 신천서부교회의 사택에 있었다. 그리고 신천시가지에서 반공군이 공산당들과 시가전(市街戰)을 하고 있는 총소리가 들리자 김익두 목사는 미리 준비하였던 태극기를 신천서부교회 정문에 꽂아 세우고 만세를 불렀다. 이때 김익두 목사와 함께 만세를 불렀던 성도들 가운데는 조예득 장로¹⁶⁴⁾, 한태선 집사¹⁶⁵⁾, 신창로 집사, 한춘식씨¹⁶⁶⁾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익두 목사는 한춘식씨와 함께 신천서부교회의 종탑에 올라가서 교회종을 치기 시작했다.¹⁶⁷⁾ 이때 신천천주교회의 종탑에서도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때의 반공의거는 공산당 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이튿날인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신천지역은 비교적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¹⁶⁸⁾

1950년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김익두 목사는 밤새도록 들리는 시가전의 총소리와 교회의 종탑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하나님께 철야기도를 드렸다.¹⁶⁹⁾ 김익두 목사의 철야기도는 지금 동쪽끼리 총질을 해대는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인가? 라고 통곡하는 끝없는 참회와 변민의 기도였으며 새벽하늘을 가르는 통곡이었다.¹⁷⁰⁾

새벽 4시 30분경. 김익두 목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새벽기도였다. 그의 나이 76세였다. 이때 약 60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합동찬송가 5장(통일찬송가 44장)인 ‘찬송하는 소리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라는 찬송이 있는 후 김익두 목사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였다.¹⁷¹⁾

김익두 목사가 설교를 마치려 할 즈음이었다. 갑자기 공산군 9명이 예배당안으로 쳐들어왔다. 정복차림의 공산군 2명이 정문앞에서 경계를 서고 1명은 계단에서 있었으며 나머지 6명은 교회당 출입구와 후문, 건물 옆 찬양대 창문쪽에서 일시에 총구를 디밀고 쳐들어 온 것이다.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임성근(林聖根) 장로였다. 찬양대 옆 창문에 있던 공산당이 김익두 목사를 향하여 총을 쏘았는데 조준이 빗나가 제 일 앞자리에 있던 임성근 장로의 머리를 관통하게 된 것이다. 임성근 장로는 그 자리에서 소천받으셨다. 그 뒤에는 예배당 뒷편 마루에 앉아 있던 김홍선이라는 24살의 청년이 교회문을 박차고 도망하려다가 밖에서 경계하고 있던 공산군이 대검(大劍)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하였다. 또 한사람의 순교자인 이천실(李天實) 집사는 예배당에서 뛰어나와 우물쪽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공산군이 그녀를 발견하여 등위에서 총을 쏘았다. 결국 이천실 집사는 등을 관통당하여 순교하였다.¹⁷²⁾

이때 김익두 목사는 미처 피신하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그 모습을 강대상 위에서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공산군 1명이 김익두 목사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네레 김익두 목사네?”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익두 목사는 공산군에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총칼을 들고 들어왔네?”라고 하며 같이 호통을 쳤다. 김익두

161) 최혁, 『대부흥사 김익두』, 179~184쪽.

162)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144~156쪽

163) 이 내용은 돌무지 라는 한국전쟁영화에도 나온다.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54쪽

164) 서울 서대문교회 조계도 장로의 부친.

165) 전 천호동 광성교회의 장로

166) 한춘근 목사의 친동생

167)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166~168쪽.

168)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175~178쪽.

169)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54쪽.

170) 이형근, 『한국교회 순교자』, 97쪽.

171)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178~80쪽.

172) 위의 책, 181~184쪽.

목사의 나무람에 화가 난 공산군은 “이 반동 아새끼가 뭐이 어드레?”하며 아식총 끝에 장착한 대검으로 김익두 목사의 가슴과 배를 쿡쿡 찔렀고 김익두 목사는 그 총부리를 손으로 치우며 “무례하다! 총 끝을 치워라! 어디에다 함부로 총을 대느냐!”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른 공산군 분대장 한명이 예 배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김익두라는 아새끼가 어디에있네?” 라고 소리치며 물었고, 김익두 목사에게 총을 들이대었던 공산군이 “이새끼가 김익두라요.” 라고 답했다. 그 때 김익두 목사는 “그렇다. 내레 김익두 목사레.” 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저 늙은이가 김익두레”라고 말하며 공산군 분대장은 “네레, 공산 주의가 비단보에 똥 싼거라고 설교했네?”라고 물었다. 김익두 목사는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공산주의를 욕하고 그들에게 당신들도 공산주의에 속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전도했다. 계속되는 김익두 목사의 설교에 화가 난 인민군 1명이 총개머리판으로 김익두 목사의 가슴팍을 내리쳤다. 그리고 쓰러지는 김익두 목사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다. 김익두 목사는 쓰러진 상태에서 “예수 믿고 천국가시요!”라고 신음속에서 말했고 김익두 목사의 뒤에 서 있던 공산군이 분대장의 찔렛! 이라는 명령과 함께 “시끄럽다!”며 김익두 목사의 등을 대검으로 찔렀다. 이어서 김익두 목사의 앞에 있던 공산군이 김익두 목사의 앞가슴을 대검으로 찔렀으며 그 뒤 연속으로 계속 김익두 목사를 찔러댔다. 김익두 목사는 피를 흘리며 강대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결국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천받으셨다.¹⁷³⁾

1950년 10월 13일 밤 9시. 신천지방 후퇴작전을 시행하던 공산당은 반동불순분자처단계획도 함께 추진하였는데,¹⁷⁴⁾ 신천시가전 때에 들렸던 교회종탑소리를 듣고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체포해오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은 공산당은 김익두 목사를 1950년 10월 14일 새벽기도회때 대검을 사용하여 숨지게 하였으며 김익두 목사는 그들에게 끝까지 설교를 하다 칼에 찔려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하였던 것이다.¹⁷⁵⁾

결국 신천서부교회의 새벽기도회에서 순교한 사람은 김익두 목사와 임성근 장로, 이천실 집사, 김홍선 집사 모두 4사람이었다.¹⁷⁶⁾ 성도들은 경황없이 쫓겨다니다가 4일이 경과한 후에야 김익두 목사와 3명의 시신을 예배당 뒷뜰에 가매장을 하게 되었다.¹⁷⁷⁾ 그리고 국군과 U.N.군이 신천에 입성한 뒤 성도들은 공동회의를 열어 김익두 목사의 장례일자를 11월 29일로 정하고 나머지 순교자들의 장례식은 11월 14일에 재동교회와 합동으로 거행하기로 하였다.¹⁷⁸⁾

1. 4 후퇴 바로 직전인 11월 29일에 진행된 김익두 목사 영결식에서 전재선 목사가 집례를 하였고, 상주는 김정목 목사였으며, 약사는 한태선 집사였고, 찬양은 신천서부교회 성가대가 맡았다. 400여명의 문상객과 함께 한 김익두 목사의 영구는 안악으로 가는 고향 쪽 고개를 넘어 그곳으로부터 4Km 떨어진 산중턱에 있는 한 권찰의 가정 묘지에 안장하였으니¹⁷⁹⁾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에서 귀히 쓰신 세계적 부흥사요, 권능의 종이었던 김익두 목사의 최후였다.¹⁸⁰⁾

173) 위의 책, 185~90쪽

174) 심근식, 『한국교회 인물 25인 약사』, 86쪽.

175) 한경은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 10월 13일 신천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날 14일 토요일 새벽에 김익두 목사는 괴뢰군이 찔른 칼에 상처를 입고 강대상 위로 기어 올라갔으며 괴뢰군은 김익두 목사를 따라 올라가 강대상 위에서 총 끝에 달린 칼로 기도하고 있는 김목사의 등을 수차례 찔러 김목사를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한경은 권사는 자신외에도 김익두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김재순씨가 아직 생존해있으며 한춘근 목사 역시 김목사가 순교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광경을 다 목도하였다고 한다.

176) 김익두 목사와 함께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와 그 성명에 대하여는 이 외에도 김재호(온정리 전도사)와 청년들도 몇 죽었다고 증언하는 사료들이 있다.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55쪽. 한태선 장로와의 면담, 서울, 광성교회, 1987년 1월 8일, 한태선 장로는 서울광성교회(천호동 소재)의 원로장로이며 김목사가 순교할 당시 참석하여 [김목사 순교당시- 필자] 김목사의 순교당하는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새벽에 김목사외에 함께 순교한 사람들은 임성근 장로, 이천실 권사(한태선 장로의 부인), 김홍선 집사, 온천교회 전도사, 교회청년 1명 등 5명이었다고 말한다. 朱承中, 『韓國教會 殉教者들의 說教內容과 思想에 關한 研究』,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교, 1987), 51쪽의 각주 46)번에서 재인용

177) 한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170쪽.

178)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190~95쪽.

179) 심근식, 『한국교회 인물 25인 약사』, 87쪽.

이미 살펴본 대로 김익두 목사는 신사참배문제의 시비(是非)와 기독교도연맹가입의 치욕으로 인하여 그의 노년이 평탄치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김익두 목사의 순교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역사평가면에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¹⁸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김익두 목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치 그의 죽음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테반과 같이 거룩한 순교를 함으로써 복음사역의 대미(大尾)를 장식했습니다.……그는 임종의 현장마저도 복음의 사역자답게 예배당을 선택하여 설교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니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죽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북5도의 밑알로 썩어져 순교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과 싸우다가 순교한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피살되어 거룩한 최후를 마친 것입니다.¹⁸²⁾

만년(晩年)의 그는 불우(不遇)했다고 할 수 있고, 편자(編者)나 편자의 형님되는 이성주(李聖柱- 6.25때 순교)목사도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기독교도연맹 관계로 김목사님에 대하여 반대 항의를 한 일이 있어,……1950년 10월 14일 기도하는중에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하셨다니, 월남시(越南時)까지 편자의 마음에 가졌던 노지도자(老指導者)의 상(像)을 다시금 고칠 수 밖에 없고, 한없이 그리워도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어, 기쁨의 글로 끝을 맺고자 한다.¹⁸³⁾

한국교회가 낳은 최대의 부흥사, 이적을 행한 목사 김익두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의 생을 신앙으로 마쳤다. 혹 그를 향하여 신사참배한자요, 기독교도연맹의 두목이라 비난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교회에서 죽게하여 하나님의 품안으로 그 몸을 옮겨 가신 것이다.¹⁸⁴⁾

김익두 목사님은 여러가지 능력의 이적이 많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나 이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인지 인민군 총의 순교의 면류관을 쓰셨다. 그의 몸은 땅속에 묻혔으나 그의 영혼은 호흡이 떠나는 찰라에 하늘 천사들의 호위 밑에 영생낙원,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찬송 부르며 살고 계신다. 오늘도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을 위해서 보좌 가까이 가서서 기도하고 계신다.¹⁸⁵⁾

위에 나타난 평가에 비추어 이제 김익두 목사의 순교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실상 김익두 목사의 말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평가의 모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순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서 시작하여야 한다.¹⁸⁶⁾

180)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155~156쪽.

181) 필자는 1998년 10월 22일(목)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3학년 2학기 기독교 역사 방법론이라는 강의시간에 김인수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에게 김익두 목사의 순교에 대한 후대역사평가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었다. 김인수 교수는 순교자의 후손들이 김익두 목사를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김목사가 생의 말기에 조선기독교연맹에 초대회장이 되어 친공산주의적 행적을 보였다는 이유이다. 또한 순교자의 후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상을 죽인 공산당에게 친공산주의적 행적을 보인 김익두 목사를 자신의 조상과 같은 순교자의 반열에 넣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인수 교수는 김익두 목사를 순교자로 인정한다고 평가하면서 올바른 김익두 목사의 순교자적 자리매김을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일단 김익두 목사는 예수를 믿고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 소천받으셨으니 우리는 김익두 목사를 순교자로 인식해야겠다. 김익두 목사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목사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이다

182) 한춘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189쪽.

183) 이성호, 『金益斗 牧師 說教- 略傳集』, 176쪽.

184)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204쪽.

185)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171쪽.

186) 순교자에 대하여 카톨릭교회는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행위라고 확실히 규정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치명(致命)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순교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면 본교단(예장통합)의 경우 1935년 제24회 총회시 북만주지방에서 선교활동 중 비적에게 피살된 한경희 목사에 대해 총회차원의 순교주도식으로 거행한 경우와 해방후 첫 총회인 제23회 총회시 순교자 추도회를 거행했을 뿐 순교자에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추대없이 통념적으로 순교자를 명명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순교자를 규명할때에도 각 개인이나 교단 또는 단체의 주관적인 기준하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익두 목사의 순교문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자기가 신앙하는 교회와, 동시에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며,¹⁸⁷⁾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므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한 신자(信者)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⁸⁸⁾ 그러면 김익두 목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기준을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위에 나타난 정의에 기준을 두고 생각할 때 김익두 목사의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김익두 목사의 죽음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순교에 대한 위의 정의에 입각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김익두 목사가 한때 공산당 어용단체의 수뇌부 노릇을 하였으나, 김익두 자신 스스로도 결국에는 새벽기도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롭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김익두 목사의 말년 생활에 많은 시비(是非)가 있을찌라도 그는 결국 자신이 신앙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새벽에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의 이름과 업적은 순교자의 반열(班列)에 들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나타낸 업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¹⁸⁹⁾

먼저 부흥회 인도 횡수가 776여 회이다. 서울을 비롯한 시·도 지역의 집회가 261여 개처가 되고, 면소재지 교회의 집회가 518여 개처가 된다. 이를테면, 경상남도 22개처, 경상북도 28개처, 전라남도 21개처, 전라북도 15개처, 충청남도 17개처, 충청북도 10개처, 강원도 29개처, 경기도는 서울을 비롯하여 23개처, 황해도 25개처, 평안남도 17개처, 평안북도 23개처, 함경남도 22개처, 함경북도 25개처와 제주도까지 모두 258개처¹⁹⁰⁾이며 이 모든 것을 총괄 도합 800여개 처소가 된다.¹⁹¹⁾ 그 당시 김익두 목사의 초청 부흥 집회는 3년전에 미리 부탁해야만 성사(成事)가 될 정도로 바쁜 일정으로 짝 짜여 있었다.¹⁹²⁾ 때문에, 그는 전국을 남(전남북, 경남북), 중(충청, 강원, 경기), 북(황해, 평양, 함경)등 삼등분하여 한 곳에서 부흥회를 시작하면 그 인접교회를 우선적으로 수락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부흥회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¹⁹³⁾ 총 설교 횡수가 2만 8천여 회, 연간 집회인원이 150만여 명, 새 신자수가 28만 8천여 명, 연보 누계액이 1억 8천 5백만여 원, 새로운 교회의 건축 수 150여 개처, 증축 교회 수 140여 개처, 유치원 신설 수 120여 개처, 중수 유치원 수 100여 개처, 고친 불구자 수 1만여 명, 그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권면과 전도를 통하여 믿고 목사 된 사람이 약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¹⁹⁴⁾ 이러한 통계적 결과만 보아도 김익두 목사의 한국교회사적 영향력은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민경배 교수는 김익두 목사의 부흥운동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역사 자체 안에는 위기를 전진과 창조의 돌파력으로 전환시키는 잠재력이 전능자로부터 주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누가 순교자인가?, 『基督公報』, 1999. 6. 12.을 참조할 것

187) 金光洙, 『韓國基督教 殉教史』(서울: 基督教文社, 1979), 5쪽.

188) 항목, “순교”, 『基督教大百科事典』第9卷.

189) 최혁, 『대부흥사 김익두』, 112~113쪽

190) 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134쪽.

191) 이태선,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서울: 보이서사, 1993), 108쪽.

192) 한준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69쪽.

193) 박용규, 『신앙이 위대한 순교자들』(서울: 한조문화사, 1977), 187쪽.

194) 박용규, 『김익두 목사 전기』, 70쪽

1920년대의 위기를 새 희망과 창조적 동력으로 전환시킨 거대한 섭리의 손길이 김익두에게서 하나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교회나 선교상황 보고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당시 김익두가 끼쳤던 엄청난 정신적 영향을 버금 할만한 운동이나 인물에 대한 지시가 없다. 김익두야말로 시대적 새 기운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현저한 활기로 차고, 전례없이 복음에 압도되는 민심(民心)의 향방에 앞장서 그 파급을 지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⁹⁵⁾

이같은 단정적인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실망(失望)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민중들에게 김익두 목사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인물이었다. 따라서 김익두 목사는 3·1 독립운동 후에 희망을 잃은 민중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준 그 시대의 예언자였다. 동시에 김익두 목사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 주신 위안의 목회자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받기에 부족함이 없다.¹⁹⁶⁾

이와 같은 김익두 목사의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한 전환기에서 내면화되어가는 잔잔한 신앙의 흐름이었던 것이다. 김익두 목사는 부흥사로 주님의 일을 시작한지 50년 동안 한국내를 비롯하여 중국과 시베리아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의 발길을 옮겨 부흥회를 770여회 인도하였고, 150여 교회를 설립했으며, 1만여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 2백여명에 이르렀다.¹⁹⁷⁾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부흥운동은 상당한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교육적 배경이 별로 없는 한촌의 신앙인 김익두 목사를 1919년 이후의 사회 전환기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다.¹⁹⁸⁾ 한마디로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히 무디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었다.

김익두 목사가 평생 이룩한 기록을 보면……미국의 교회가 부흥운동에 무디(Moody, D. L)를 말한다면, 피선교국으로 놀랍게 기독교의 부흥을 이룩한 한국 교회가 김익두 목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¹⁹⁹⁾

이처럼 김익두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도였으며,²⁰⁰⁾ 실의(失意)에 빠진 민족에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희대(稀代)의 부흥사였라는 점에서 그의 부흥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¹⁾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그가 무식(無識)하였다는 점이고, 또한 기독교를 사교(邪敎)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김명식²⁰²⁾은 김익두는 迷妄者(미망자)이다 그 言語가 迷妄이며 行動이 迷妄이다. 元來 無識한 者니 知識이며 人格이며 想像이며 品性은 말할 것도 없다.……이것은 朝鮮의 羞恥이며 朝鮮의 亡兆이다.²⁰³⁾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김명식의 노골적인 비판은 김익두 목사의 언어와 행동과 지식과 인격과 품성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인 비판이었다. 즉, 김익두 목사는 사람을 미혹케하며 허망하게 만드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명식의 부정적 평가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김명식의 잘못된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타(叱咤)가 있다.

195) 閔庚培, 『日帝下の 韓國基督教 民族·信仰運動史』, 286쪽

196)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425쪽.

197) 진수철, 『순교열전』 1권 (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4), 131쪽.

198) 위의 책, 193쪽.

199) 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134쪽.

200) 鄭聖久, 『韓國教會 說敎史』, 129쪽.

201) 신광철, 민족적 실의 극복한 이적의 사도 김익두 목사, 『牧會와 神學』, 197쪽.

202) 金明植(1890 전남 제주), 신생활사 이사 겸 주필, 와세다대학, 조선노동공제회 평의원, 조선청년회연합회 집행위원, 東亞日報 논설반원,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상해파) 국내간부

203) 김명식, “金益斗의 迷妄을 論하고 基督教의 覺醒을 促하노라”, 『신생활』 (1922, 6): 5~6쪽.

김명식은 우매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요구하고 무식한 언행을 하는 김익두의 언행을 미망하라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의 비판에는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면서 비판하는 억지가 있고 그가 사회주의 색채를 띠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²⁰⁴⁾ 일단 김명식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분위기와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신앙적이고 교회적 측면에서의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는 것이다.²⁰⁵⁾ 결국, 이러한 비판은 김익두 목사가 세워놓은 지대한 영향에 비하자면 그야말로 미세하고도 편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식과는 달리, 김린서 목사는 김익두 목사의 단순함과 무식함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때에 보내신 사람이 김익두이다. 저는 성경과 기도와 병고치는 권능 세가지 밖에 아는 것도 없다. 민족주의도 유교식 시대도 아무것도 없고 제멋대로의 김익두식이었다.²⁰⁶⁾라고 묘사하였다. 여기에서 김린서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 이와같이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이루어진 제멋대로의 사역이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김익두 목사의 출신과 학적인 배경과 그 언어구사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나타내신 시대적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겠다.

■ 1922년 5월 9일자 『동아일보』는 김익두의 부흥회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김익두의 설교가 미혹된 말이며,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자 황해 노회에서는 김익두가 행한 이적들을 증명하기 위해 이적명증회를 조직하고,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증』²⁰⁷⁾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 책 소개 → 이적명증

1921년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간된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증』은 한국 개신교 초창기의 신유(神癒)와 기적 체험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김익두 목사가 부흥사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19년 말부터 1921년 초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으킨 신유 사건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으며, 당대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과 사회적 반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황해노회 산하 ‘이적명증회’가 조직적으로 조사한 21차례 부흥회의 치유 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병에서 나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의 연령, 병명, 당시 상태, 회복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실제 사진과 자필 편지도 함께 수록해 신빙성을 더했다. 또 기적의 진위를 둘러싼 교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신문 기사와 논평을 그대로 실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이적명증』은 단순한 신유의 기록을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적 시련기에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전한 김익두 목사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조명한 귀중한 사료다.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치유와 기적, 믿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살아 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책은 2008년 출간된 ‘한국기독교고전시리즈’ 『이적명증』(한영합본, 원본 수록)의 개정판으로, 1921년 초판을 저본으로 삼아 현대어로 새롭게 편집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추가했다.



204) 趙寅穆, 金益斗의 復興運動과 信仰樣態에 關한 研究" (미간행 신학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30쪽.

205) 이 기사에 대하여 민경배 교수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을 남겼다. 이때 東亞日報 記者의 客觀性을 問題 삼을 수도 있다. 社會主義的 傾向 有無도 檢討해볼 수도 있다.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215쪽의 각주 401)을 참조할 것

206) 김린서, 七十年教會史가 말하는 復興의 豫言, 『신앙생활』, 4쪽.

207) 2008년 12월 4일 KIATS(한국고등신학연구원 / 원장 김재현)에 의하여 영어-한글-원문 영인본으로 출판되었다.

□ 김익두 목사의 셋째 아들이 한국 축구계 1세대 원로인 김용식이다.

□ 북한에서 태어나서 1993년에 탈북한 탈북민 출신 목사 조바울이 외손자인데, 탈북 계기 및 과정이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1994년에 퇴근길에 몰래 탄 화물차에 있던 펑 18마리를 팔았는데, 그 펑이 김정일이 사냥해 함경북도 도당 간부 18명에게 보내는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간 뒤 텐진에서 인천항으로 가던 국제여객선에 불법 승선해 탈북에 성공했다. 이후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2012년에 정식 목사안수를 받았다.²⁰⁸⁾ 2014년에 약초 및 더덕을 팔러 자주 들르던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에 아예 정착해 월악산 자락에 작은 개척교회를 세웠다.²⁰⁹⁾

■ 일제강점기에, 개신교 부흥사로서 큰 업적을 남긴 평양신학교 출신의 개신교 목사.

김익두는 일제강점기에, 개신교 부흥사로서 큰 업적을 남긴 평양신학교 출신의 개신교 목사이다.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다. 재령과 신천 등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역을 감당했으며, 신유를 행하는 부흥사로서 당시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한국인들에게 큰 위안과 소망을 주었다. 초기 한국 개신교의 확장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해방 후 북한 지역 교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다. 신천교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 패퇴하던 인민군에 의하여 순교하였다.

김익두는 1874년 황해도 안악 출신으로, 아버지는 응선(應善)이고, 어머니는 전익선(田益善)이다. 김익두는 16세 때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실패하여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이후 1900년 봄,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W. L. Swallen)의 ‘영생’이라는 설교에 감동하여 회심하였다. 1901년 1월에 부인 및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스왈렌에게 세례를 받았다.

김익두는 황해남도 재령 지역 전도를 위해 헌신하라는 스왈렌의 요청을 받고 교역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 재령교회를 세웠다. 스왈렌으로부터 열정을 인정받은 그는 다시 신천 지역의 개척 전도사로 파송되었다.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조롱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였지만, 김익두는 참고 견디면서 겸손하고 인자한 태도로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결국, 그곳에 신천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당도 건축하여 많은 개종자를 얻었다.

1910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된 김익두는 이후 신천교회 위임 목사가 되어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목회하였으며, 11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김익두의 부흥운동은 192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김익두의 설교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속죄, 회개에 따른 중생의 체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주 의였는데, 그의 신비로운 능력과 설교에 많은 청중들이 매료되었다. 그는 1919년 12월 경상북도 달성군의 현풍교회 사경회에서 신유(神癒)의 능력을 받았으며, 그 뒤 많은 난치병을 고쳤다. 1920년 6월 평양의 연합부흥집회에는 그의 설교를 듣고자 3천 명을 수용하는 장대현교회당이 좁을 정도로 대중이 몰려들었고, 같은 해 10월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열린 일곱 교회 연합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208) 이 때 이름을 조영호에서 조바울로 개명했다.

20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0665>

1943년에는 김익두가 신의주 제일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본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여 그에게 신사 참배를 시켰다. 일본 관헌은 이것을 선전 자료로 삼는 한편, 그를 황해도 은율의 어느 과수원에 감금함으로써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광복 후 북한 공산당은 1946년 11월에 어용 기독교 단체인 '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고 그를 총회장에 강제로 임명하여 그가 공산당에 협조했다는 오명을 씌우기도 하였다.

김익두는 1950년 10월 14일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유엔군에 쫓겨 후퇴하던 인민군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50여 년 동안 그는 국내와 일본 및 시베리아 지방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776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150여 곳에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평생에 걸쳐 약 2만 8천 번의 설교를 했으며, 그의 영향력에 의해 약 200명이 목사가 되었고, 그의 치유 사역을 통해 약 1만 명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 참고문헌

- 김광수, 『한국기독교인물사』 (기독교문사, 1974)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71)
- 박성겸, 『황해도교회100년사』 (은성문화사, 1971)
- 이호문, 『한국기독교부흥인물사』 (초석출판사, 1978)

■ 김익두(金益斗) 목사의 생애와 부흥운동(1910~1940)

“한국의 베드로”, “이적과 치유의 안악산 호랑이”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는 1910년대로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한국부흥운동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776회의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28,000회의 설교를 하며 인생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린 김익두 목사는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부친 “김응선”과 모친 “전익선” 사이에서 독자로 출생하였습니다. 부친 김응선은 기와집에 터전을 잡고 사는 중산층이었으며, 지역에 사는 걸인들을 구제하고 평촌리의 노인들을 공경하여 주민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대원면 유지였습니다. 김익두는 6세때, 서당에서 한문을 배워 10세의 나이에 사서삼경을 통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3세되던 해, 모친이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30리길(12km) 거리를 달려가 한의사를 모셔오는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의사는 정성으로 치료하고 모친을 낫게 하였으며 치료비도 받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는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낙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총명한 두뇌와 천재성을 가진 김익두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예선탈락은 아버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로 몸져 누우신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유언을 뒤로 한 채 부친을 잃은 김익두는 날마다 부친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지만 응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무상에 빠진 김익두는 구월산 폐업사²¹⁰⁾에 들어가 불교에 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사상에 환멸을 느끼고 더 큰 고민의 늪에 빠진 김익두는 다시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친이 별세하고 집안의 가장이 된 김익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익두는 안

210) 북한 황해남도 신천군 구월산(九月山)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창건된 사찰, 일제강점기 31본산(本山) 중 하나로 7개 군 34개 사찰을 관장하였던 대본산(大本山)이었다.

악지방 토산물을 구매하여 평양에 가서 판매하고 평양에서 생활용품과 일용잡화를 재구매하여 안악에서 판매하는 이중소득으로 가정 생계를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길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줍게 되었는데 주머니 안에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익두는 며칠을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아 그 돈주머니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안악읍내 가장 큰 상점을 경영하는 상인이었고 김익두의 정직한 마음에 감동한 주인은 상점의 지배인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김익두는 영업능력이 좋고 정직하여서 많은 손님들이 상점을 찾아와 수익은 날로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히 김익두의 고객은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매우 신뢰하였고, 자기집 귀중품을 맡기고 보관하는 전당포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안악읍 최고 상점의 지배인으로서 좋은 직업을 가진 김익두에게 곳곳에서 혼사처가 들어왔고 18세의 나이에 16세의 “김익진”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동네에 큰 공장이 입주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익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서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그것은 친구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상 전래의 토지와 집이 몰수되고 김익두는 하루 아침에 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익두는 세상을 한탄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김익두는 거리에서 사람들과 시비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장날에는 부녀자들과 할머니들의 노점상을 갈아엎거나 던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날이 하루, 한주, 한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시장 상인들이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비는 일이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방탕의 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익두는 오늘도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양 여선교사가 시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선교사는 김익두에게도 전도지를 주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도지를 건네받은 김익두는 “뭐라고? 나보고 서양귀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지로 코를 풀어서 바닥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하며 꾸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를 잘 알지 못했던 여선교사와 여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김익두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라고 건네주는 선교사의 전도지를 구겨서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김익두는 무심코 구겨진 전도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김익두는 “세세토록”이라는 네 글자에 심장이 떨리는 느낌을 받고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선교사가 전해준 종이에 적혀 있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 세세토록은 “영원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일까? 이 말씀은 며칠 동안 김익두의 머릿속을 흔들어 놓으며 잠을 설치도록 하였습니다.

며칠째 고민에 빠져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친구이며 예수교를 신앙하는 “박태환(朴泰煥)”(후일금산교회 장로)이 김익두를 찾아 왔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함께 교회에 가자는 권유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때의 김익두 라면 “교회는 무슨? 조상도 모르는 서양귀신에게 홀려서 잘하는 짓이다!”라고 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날은 박태환의 권유를 못이긴 척 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1900년 3월, 금산교회에서 개최된 남자 부흥사경회에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스왈렌”(소안론, Swallen, W.L.)이 강사로 초빙되어 “영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김익두는 서양사람이 한국말에 능숙한 것에 한번 놀라고, 서양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수없이 몰려든 한국사람들에 또 한번 놀라고, 방탕한 생활로 교회라면 치를 떨었던 자신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주먹깡

때 김익두를 바라보는 교인들과 사람들도 모두 놀라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장터에서 술이 나 마시고 있어야 할 사람이 부흥사경회에 앉아있으니 혹시 무슨 행패라도 부려서 집회를 망치게 될까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선입견이었고 기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실패하고 술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 김익두는 스왈론의 설교속에서 녹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받아들게 된 전도지 한 장과 박태환이라는 친구의 소개와 스왈론 선교사의 만남을 우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익두는 스왈론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무섭고 두려웠던 모든 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자복의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김익두는 아직도 통회하며 얼굴과 온몸은 땀과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짓눌러 왔던 인생의 죄짐들은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였던 스왈론 선교사님도 김익두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는 처음 만나는 김익두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김익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는 김익두에게 순한문 신약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는 이제 주먹 쥘때와 술주정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익두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읽었으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랜 술친구였던 김선봉을 전도한 김익두는 그와 함께 교회 안팎의 궂은 일과 힘든 일들을 척척 해내는 등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집에 가서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김익두는 김선봉과 함께 술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생, 월선과 옥화를 전도한 김익두와 김선봉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별주 한잔씩 하자고 무심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을 마시던 김익두가 감전사를 일으키며 충격을 받고 쓰러져 기절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선봉이 깜짝 놀라 겨우 집까지 업고 돌아왔으나 1주일 동안 혼수상태를 거듭하며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겨우 일어나게 된 김익두는 예수 믿은 후 다시 술을 마신 것을 회개하며 3일간 금식하고 통회하며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지 1개월째, 김익두를 바라보는 교인들과 사람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익두는 교인들 앞에서 공개 자복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선포하였습니다. 김익두는 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청결하게 하며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익두의 변화에 교인들은 점차 신뢰를 보냈고 그는 친구인 김선봉과 함께 교회의 환경정리와 크고 작은 일들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모팻 선교사와 함께 한국 부흥의 주역이었던 스왈론 선교사와 김익두의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김익두는 스왈론 선교사로부터 받아든 순한문신약성경을 1년간 100독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김익두는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불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에 도전한 김익두가 산에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던 중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져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하며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 한없이 울고 찬송하며 밤을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900년 7월, 세례를 받기로 예정하여 부부가 각방을 쓰고 매일 목욕재개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

여 세례를 준비하였으나, 선교사의 순례가 늦어져 1901년 7월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머니와 아내까지 함께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김익두는 전도왕이었습니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 김익두의 영혼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야에서 사라졌던 김익두가 안악장터에 다시 나타나자 장사꾼들은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익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의구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몽둥이와 쇠파기를 들었던 김익두의 손에는 성경과 전도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김익두입니다. 안악장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였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당했던 여러분들께서 저를 한없이 때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인들은 예전의 양심이 있었던지 보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지만 진심어린 반성에 함께 울며 용서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익두의 진심과 용서에 감동을 받은 일부 상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901년, 28세의 변화된 김익두에 관한 소문이 전국으로 알려 지면서 “재령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빙하겠다는 교섭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큰 약방에서도 15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김익두에게 채용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재령교회의 사례가 30원이었으니 김익두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익두는 순간 기도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의 약방도 종살이고, 교회의 전도사도 종살이인데 같은 종살이라면 사람의 종보다 하나님의 종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으로 재령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김익두가 재령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그곳에는 남자 1명과 여자 10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부임 즉시, 김익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름성경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등록한 어린이들이 김익두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회개를 하자 그들의 부모들도 이어서 회개를 시작하였고 교회는 온통 자복함과 통회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놀라운 역사였으며 재령교회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재령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을 잃은 성도들은 전도하기 시작했고, 어린이들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김익두의 첫 번째 사역은 이렇게 대성공을 이루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예고하였습니다.

재령교회의 부흥은 신천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김익두는 그 후 신천교회의 선교사와 동사전도사로 청빙을 받고 사역지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천교회는 교회만 있고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김익두는 6개월간 매일 철야기도를 하고 애원하는 중에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절름발이 장애인 여자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을까요? 장애인 거지 여자라도 한사람이 함께 있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익두는 장애인 거지 여자를 보통의 정상적인 교인으로 자라게 하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번엔 남자 거지 한 사람이 김익두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돌려 보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핌으로 보통의 일 잘하는 교인으로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한 김익두 전도사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신천교회를 찾아왔고, 한주일에 10명, 어떤 주일에는 20명이 찾아와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간의 노력 끝에 한 사람의 교인도 없었던 신천교회는 300명의 교인으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김익두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고, 하루에 세 번씩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읽는 것을 숨쉬는 것처럼 하였고, 길에서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기를 습관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김익두 전도사를 평양신학교에 파송하여 목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평양신학교는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로서 1901년에 설립되어 1907년, 길선주와 서경조 등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김익두 전도사는 김관근, 박정찬, 김종섭, 안승원, 우종서, 주공삼, 채정민 등 27명과 함께 1910년 제3회 졸업생이었습니다. 1910년 9월 20일, 37세의 김익두는 평안북도 선천군 염수동교회에서 개최된 제4회 독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김익두가 목회한 선천교회는 날로 성장하여 700명의 교세로 확장되었습니다. 한명도 없었던 선천교회는 이제 협소하다 못해 교인들이 밖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새로운 성전건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3일 금식기도를 마친 김익두 목사의 환상중에 노아의 방주 모양을 한 대예배당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김익두 목사는 교인들에게 성전건축을 선포하고 건축헌금을 작성하였습니다. 한주만에 쏟아진 교인들의 작성헌금은 힘에 겨울 정도로 지나친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마친 교회당 건축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선천지역 유지들에게 가서 교회 건축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되는 김익두 목사의 제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그렇게 인식하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유지들이 큰 기쁨으로 호응하며 김익두목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불신자들의 헌금에 충격을 받은 성도들이 추가로 헌금을 하여 선천교회 대성전은 재정부담없이 여유롭게 완공될 수 있었으며, 그때 건축헌금을 하였던 지역의 유지들도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천교회 성전헌당식을 끝낸 후, 김익두 목사는 선천 시내 길가에 앉아있는 앓은뱅이를 찾았습니다. 베드로의 이적을 기록한 성경을 믿는 김익두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감과 확신없는 믿음이 그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김익두 목사는 하나님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며 다시 1주일간 금식기도를 마친 후 앓은뱅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앓은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향후 39년간 수십만명의 병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일으킨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유집회로 명성을 더 높여가던 어느 여름날,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산고개를 넘어 가던중 너무나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남자가 올라와 “왜 당신이 여기에 먼저 올라와 있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는 그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지 않고 다 맞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폭력을 멈추자 김익두 목사가 “형님, 이제 다 때렸소?”라고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건데!” 하면서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정색을 하고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시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형님! 제가 이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하면서 어쩔줄 몰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를 따라와!”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참석케 하였고 그는 훗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익두는 이제 주먹쟁이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다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성경다독을 권유하였고 김익두 목사의 영향을 받은 선천교회 교인들 또한 성경을 많이 읽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일설에 구약을 100독, 신약을 1,000독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설교 주제도 언제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김익두의 신앙생활의 기본원칙이었고 주제였으며 생활법률과 규범이었습니다.

1919년 12월 25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내 현풍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는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었습

니다. 때마침 “박수진”이란 거지가 집회현장에 나타났는데 그는 10년전 사고로 아래턱이 떨어져 음식을 누워서만 먹던 자였습니다. 거지로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김익두 목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간에 다시 그를 불러 기도를 하였는데 박수진의 아래턱이 올라가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스스로도 놀라고 주위에서 바라보던 사람들도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래턱이 나온 박수진은 그 길로 동네를 다니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김익두 목사는 신유의 역사를 이어갔고, 곱사등이 소녀가 펴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대구 경산읍교회에서는 수십명의 환자들이 집단으로 치유를 받았고, 대구교회 집회에서도 수백명의 병자들이 한꺼번에 치유를 받는 기적같은 일이 눈앞에서 목도되었습니다. 김해군 진영리교회에서는 23년된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평양교회에서는 11년된 병어리 여인이 말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김익두 목사의 능력을 대서 특필하고 그의 능력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신유사역은 병자 자신의 회개와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구집회에서 “김경애”라는 기생은 1년간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김익두 목사의 기도를 받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기생으로 돌아간 그녀는 중풍이 재발하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안악군 동문면에 사는 “최석항”이라는 사람은 30년된 중기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김익두 목사의 기도를 받고 완전히 치료받았지만 후에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 병이 재발함은 물론 그 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20년 10월 20일, 2주간의 금식기도를 마친 김익두 목사는 제8회(1919) 마펏 선교사에 이어 서울 안동교회당에서 제9회 장로교 총회의 총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승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도로와 교통이 편리하지 않던 시대, 1만명이 회집한 부흥회에는 교회당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마당과 인도변까지 명석을 깔고 앉아 부흥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당시 승동교회 집회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만국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올랐던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지도자들도 김익두의 명성을 듣고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신유집회를 반대하였던 “밀스” 선교사는 회심하였으며 “로스” 선교사 등 해외교계 지도자들은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1920년, 19세의 나이로 승동집회에 참석한 “김재준”은 훗날 목사와 대 신학자가 되었고, 1920년 5월 27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개최된 부경사경회에 지수광, 배익자, 이약신과 함께 참석한 “주기철” 목사는 “성신을 받으라”는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1922년 3월, 주기철 목사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훗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922년, 동아일보(5월 9일자 신문)는 초기에 김익두 목사의 치유를 사람을 미혹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황해도회 “임택권” 목사는 노회 산하에 “이적증명회”를 조직하고 김익두가 이적을 행할 때 그 당사자들의 사진을 모두 찍어서 “이적증명서”라는 노회차원의 공식적인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신유 이적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질병이 있었고, 김익두 목사의 말씀과 기도와 환자의 회개로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이러한 치유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언론의 대표지였던 기독교신문 259호는 김익두 목사의 신유집회를 “세계 3대 불가사의”라고 보고하였고, 동아일보 58호와 매일신보 4645호에도 대서특필 되는 등 김익두 목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북새통을 이루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경남 20개지역, 대구경북 25개지역, 전남광주의 21개 지역, 전북전주의 15개지역, 충남보령외 17개지역, 충북제천외 10개지역, 강원횡성의 22개지역, 경기수원 외 20개지역, 황해재령외 24개지역, 평남평양외 17개지역, 평북연변외 22개지역, 함북나진외 16개지역, 함남원산외 22개지역, 제주도 전역 등 전국 258개지역에서 776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28,000회의 설교와 1천 5백만명이 참석하여 288만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일이 김익두의 집회에 있었습니다. 150개의 교회가 새롭게 설립되었고, 140개 교회는 넘쳐나는 성도들로 인하여 증축이 시급하였으며, 120여개의 유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치유한 완전 장애인인 1만여명에 달하였고,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주기철, 유원봉, 유해천, 유만식, 오운호, 김정묵, 양석진, 김재준, 이성봉, 전재선 등 58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가 인도한 집회에서 반지, 비녀 등 귀금속을 비롯하여 당시 현금 액수로 1억8천5백만원이 모금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교 “홍택기” 총회장은 평양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선국민의 의무”라는 이유로 총회가 결의한 이 내용은 기독교 사상 가장 천박한 결정으로 알려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5차례의 구속과 7년간의 옥중 고난 가운데 1944년 4월 21일,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최봉석과 박관준 목사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끝내 순교하였습니다.

1938년 당시, 김익두 목사는 서울 승동교회의 담임목사로 8년간 시무중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강사인 김익두 목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협박하며 회유를 동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자신이 읽었던 성경에서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고, 종로경찰서는 김익두 목사를 강제 연행하여 체포, 구금하였습니다. 회유책에 실패한 일본 경찰은 몽둥이와 극심한 고문으로 1개월 동안 압박하였고 결국 빈사 상태가 된 김익두 목사가 반응이 없자 가족들에게 데려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종교적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김익두 목사를 파면하고, 승동교회에서의 설교를 금하였으며, 경성에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1938년 12월 28일, 김익두 목사는 승동교회에서 파면당한 채 황해도 은율군 장연면 직전리 피아골이라는 첩첩산중으로 정배(지정된 장소로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오랜 고문으로 김익두 목사는 피폐해져 있었고 3개월이라는 회복기가 필요하였습니다. 1939년 3월, 김익두 목사는 사과나무 600주를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바위에 자리를 정하고 매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부흥강사로 김익두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라도 교만을 하였을까요? 첩첩산중 사람 한 명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보내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기도와 함께 조금씩 치유되었고 그의 영혼은 평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941년, 일본경찰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는 신의주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본 경찰들이 강제로 신의주 신사당으로 끌고 갔는데 그중에는 교인 몇 사람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신의주 신사당앞에서 일본 형사들은 김익두의 머리를 휘어잡고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하며 “최경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처절한 반항으로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로 복귀한 일본 경찰들은 김익두 목사가 신사에 참배를 하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의 보고서를 들고 장로회 총회를 찾아간 종로경찰서장은

친일파 목사들을 불러 놓고 김익두 목사가 신의주 신사당에서 참배를 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급속하게 유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945년 8월, 조국은 해방되었고 평양신학교 대강당에서 장로교 총회 차원의 대각성회개와 부흥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전직 총회장이며 부흥강사 자격으로 부흥집회의 개회설교를 맡았습니다. 이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광복으로 출옥한 “채정민” 목사가 강단으로 올라가 김익두 목사를 제지하며 신사 참배를 한 자가 이곳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채정민 목사의 고문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1개월간 모진 고문을 이겨야 했고, 지금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으니 모든 것이 참담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조국광복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장로교는 친일행적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내가 잘하였고 나는 여기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때라는 진실이 있음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1945년 9월, 김익두 목사는 다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전과 같은 신유의 은사나 능력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목사인 자신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할 소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직전리 교회의 담임으로 새롭게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재령 해창교회로 이동하였고, 다시 신천서부교회로 이동하여 목회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제국이 아니라 공산주의였습니다. 민족의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 남북은 38도선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지역은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신론의 종주국인 소련이 진주하였고 군사정권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하던 김성주를 김일성장군으로 둔갑시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40만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들은 모두 경계대상이었습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김일성 정권은 기독교를 모두 꺾멸시켜야만 했습니다. 감언이설과 공갈 협박의 양날개로 기독교를 겁박하였지만 신앙의 힘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대항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외조부이며 목사 출신인 “강량옥”을 내세워 “기독교도연맹”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조직에 곽희정, 신영철, 나시산, 이웅, 심익현, 김치근, 황기환 등이 가담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탄압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지역에는 장로교 산하 5도 연합노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공교회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회장 목사를 비롯하여 김화식, 강문구, 이유택, 김길수, 허천기, 이기혁 목사위원 등 신앙에 헌신적인 분들이 생명을 각오하고 공산주의에 저항하였습니다. 1946년 11월 3일, 주일 1차 대의원선거를 주일에 개최하였으나 기독교가 전면 반대하여 불참하고 선거 자체가 실패하자 공산주의자들은 5도 연합노회 임원들을 모두 체포하고 구금하여 교회의 지도체계를 사실상 와해시켰습니다. 이 기간을 틈타 기독교도연맹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김익두 목사를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이러한 조직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총회장을 수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량옥이 신천으로 김익두 목사를 찾아와 만난 사실이 있고, 강량옥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돌아온 강량옥은 김익두 목사가 총회장직을 승낙하였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량옥과 기독교도연맹 임원들은 김익두 목사의 이름을 이용해 산하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강요하였으며, 가입을 거부하는 목사와 교인들을 검거하거나 추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중요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목사와 교인들은 김익두 목사가 변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맹비난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삼남 김용식은 서울에서 김익두 목사의 월남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신천서부교회 500명 성도들의

생명과 신앙을 버려두고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76세의 노인이 이제 얼마나 더 살까 하면서 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49년 5월 1일, 노동절은 북한에서 가장 성대하게 여기는 명절이었습니다. 노동절 행사에 김일성 장군은 특별하게 김익두 목사를 초청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큰 성경을 가지고 입장하였고,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김익두 목사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받을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옳은 사람을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 하였느니라”(야고보서 5:1~6)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조작하고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였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정치보위부에서 김익두 목사를 찾아와 다른 교회에서는 모두 스탈린 수상 사진과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게시하였으니 김익두 목사의 교회에도 게시를 강요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내 목을 칼로 자르라. 교회 강단에 예수님의 사진도 걸지 않는데 누구의 사진을 건다는 것인가?” 하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현장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월남한 후 서울 천호동 광성교회 장로로 봉직한 한태선 집사의 증언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6.25전쟁 이후 UN의 참전으로 조기에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장기화하고 김익두 목사가 거주하는 신천지구까지 UN군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10월 13일 국군이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달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김익두 목사는 감격한 나머지 10월 14일 새벽종을 울리며 새벽기도회 시간에 육군 입성을 광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20명의 사람들이 남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패퇴하던 북한군 병사가 김익두 목사의 광고를 들은 후 교회안으로 습격해 김익두 목사 등 6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는 총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0월 19일, 육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11월 29일, 김익두 목사의 장례는 향년 76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안악산 호랑이, 주먹강패왕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성이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 한 번 빼돌어지기 시작한 인생으로 김익두는 젊은 날을 술과 계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우연하게 만난 여선교사의 전도지 한 장은 김익두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익두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내려 놓았을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멈추었을 땐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2백만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한 훌륭한 한국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오해와 누명의 옷을 입어야 했고, 그것으로부터 평생토록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월남하여 남한 땅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신천서부교회의 500명 어린 양들을 버릴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 참된 목자였으며 이로써 억울함과 누명을 증명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 그가 강패로 살았던 시간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가 목사로 살았던 시간은 5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김익두 하면 목사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왕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실보다 거짓을 더 신뢰하고 변화의 삶보다 그 이전의 삶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김익두는 그렇게 변절자이고 주먹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1920년대 한국은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하였고 수많은 고통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 신사참배와 공산당에 끝까지 저항하다 '순교'

김익두(金益斗, 1874~1950)목사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부친 김응선과 모친 전익선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비교적 집안 형편이 좋은 가정이었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 갔다. 그의 나이 여섯에 서당(書堂)에 다니며 한문을 익히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너끈히 떼내어 주위로 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 장래의 큰 희망을 품고 선비의 꿈을 가지고 과거시험에 응시한 적도 있었으나, 낙방의 고배를 맛보기도 했다. “너는 살아가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는 어린 익두가 13살 때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워지자 아들을 불러 놓고 한 유언이었다. 익두는 아버지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때로는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어 아들을 한문 서숙에 보내 가르쳤으며 개인적으로 아들에게 한문과 산학(算學·산수)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익두 소년에게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부친을 여의고 13세 나이에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야 하는 세상 물정도 몸소 겪었으며 때로는 술로 세월을 보내며 강패처럼 살아가는 모진 인생사를 겪기도 하였다. 한때는 인생문제에 회의가 들어 당시 유행이던 동학(東學)에 입문해 심취하기도 했고, 불도(佛道)에 기웃거리기도 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엔 주색잡기에 빠져 불한당으로 변모해, 갖은 행패를 다 부리는 망나니로 전락하였다. 오죽했으면 당시의 평양시민들이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성황당에 들러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했겠는가.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사무엘 마뎃이 길가에서 전도 책자를 나누어주며 전도하고 있는데 주정꾼이요 강패였던 익두가 던진 돌에 턱을 맞아 흉터가 생겼다는 일화가 그의 과격했던 삶을 반증해주고 있다.

□ 27세에 예수 영접, 소명 받아

1900년 27세가 되던 해에 김익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다. 하루는 익두가 평양 장날 불일을 보러 갔다가 장터에서 서양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 한장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 호주머니에 무심코 구겨넣어 두었던 전도쪽지를 읽게 되었다. 그 내용인 즉 이러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벤전 1:24). 그 글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였다.

이때 마침 친구 박태환(朴泰煥)이 스왈렌(蘇安論 Dr. Swallen willian)선교사가 이끄는 부흥회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예전 같으면 콧방귀나 끼었을 그는 순순히 친구를 따라 나섰고, 바로 그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나 방탕의 오랜 습관에 물들어 있던 그는 얼마 못가 다시 옛 술친구들과 어울려 또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다. 얼마 후 내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선 안되겠다는 자각이 있었고 스왈렌 선교사에게 서약했던 고백이 떠오르게 되어 자주 친구들과 함께 드나들던 기생집에서 밖으로 박차고 나가 산속으로 들어가 가슴을 치며 밤을 꼬박 세워가며 자기도 모르게 참회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 가슴속으로 큰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너무나 놀라 “어이쿠 불벼락이야”하며 놀라 소리치게 되었는데 안방에서 자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놀라 밖으로 뛰어나올 정도였다. 익두는 난생처음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그는 죄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28세에 재령읍교회에 전도사 취임

이윽고 김익두는 28세 때 재령읍교회 전도사라는 명예로운 성직을 얻어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위한 역군이 된 것이다. 그의 첫 목회지는 여성도 10여명, 남자 1명이 출석하는 빈약한 목장이었으나 그해 10월에 그에게 세례를 베푼 스왈렌(Swallen)목사의 부탁으로 신천(信川)교회로 임지를 옮겨갔다. 그곳에서 김익두는 서양귀신을 섬기는 자라 하여 발길로 차이고 온갖 욕설과 조롱, 돌 팔

매질을 당하는 핍박을 받았다. 막상 가서 보니 교인 한 명 없는 빈 교회였다. 그가 빈 교회에서 기도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절름발이 장애인 여자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 장애인을 두 팔 벌리고 환영하였다. 뒤이어 남자 걸인이 찾아왔다. 그는 그 걸인도 잘 모셨다. 그 후 그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교인 한 명 없던 교회가 3년만에 30명의 교인으로 부흥했다. 그 후 그는 신천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1924년에는 700명의 교인이 모이게 되자 동·서로 분리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33세 때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에 졸업, 목사안수를 받았고 1920년엔 드디어 총회장에 피선되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나중 그는 평양뿐만 아니라 만주와 시베리아(러시아)에 이르기까지 776회가 넘는 부흥사경회를 이끌면서 나라 잃고 고통받으며 방황하는 동포들에게 구원의 메세지와 위로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

□ 초기 부흥사로서의 김익두

그의 부흥집회로 150여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의 설교에 감화를 받아 목사가 된 이들만도 200여명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김재준과 순교자 주기철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부터 김익두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사도행전적인 이적 기사가 따랐다. 1919년 달성군 현풍교회에서 턱이 빠진 걸인을 위해 금식기도 하던 중 턱이 나았고, 경산교회에서는 중풍병이 든지 3년된 환자를 안수기도로 고쳤고, 대구에서는 반신불수된 남자 신자를 고친 바 있고, 부산에서는 생후 8개월만에 앓은뱅이 된 자를 안수하여 고쳤고, 경남 김해에서는 23년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완쾌되는 역사가 뒤따르면서 선풍을 이뤘다.

한편 이즈음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통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라는 멍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당시 총회는 1938년 평양 총회에 당국의 악랄한 압제정책으로 총회원 사이사이에 일본 형사들이 한사람씩 끼어앉아 강제로 총대들의 팔을 들어 올리면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 결의를 가결하는 천추의 오점을 남기는 결의를 하고 만 것이다. 당시 총회 결의에 잘못됨을 지적하고 현장을 이탈한 주기철 목사를 총회 항명죄로 목사직을 면직하는 불법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1984년 한국선교100주년에 즈음하여서는 해당자(주기철목사)도 또 당시 벌했던 총대들도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총회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 총대들에 의해 <해벌복권>이란 웃지 못할 결의를 또 감행하고 말았다.

□ 총회의 신사참배에 반대

신사참배 결의는 한국교회의 분열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상처입은 생채기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일제당국은 김익두를 찾아와 협력을 강요했으나 거절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익두목사는 전신에 구타를 당하고 손가락 사이에 각목을 끼워 비트는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손톱밑에 대나무 침으로 고문했다. 김목사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조국은 혼란에 혼란을 더하더니 드디어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 이 민족과 교회는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해방이 되자 북쪽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고 김일성은 강양옥목사를 앞세워 반공의 보류였던 기독교를 포섭, 조직적인 파괴와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산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김익두목사의 허락도 없이 명목상의 총회장 자리에 올립하였다. 김목사는 황해도에서 피난을 못하고 은신해 있으면서 라디오를 통해 전황을 들으면서 국군 수복을 고대하고 있었다.

□ 공산당에 대한 저항으로 끝내 순교

1950년 10월 14일 새벽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감을 잡고 교회 새벽종을 쳤는데 50여명의 교

인들이 새벽에 모여들었다. 김목사는 모여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압제에서 이 백성을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를 마치고 김목사가 설교를 하려는데 한 청년이 다급하게 뛰어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위험하오니 피하세요. 패잔병들이 이 산에 숨었다가 교회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김목사는 피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하였다.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곧 들어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들을 환영합시다”라고 했다.

예배를 마치고 일부는 돌아가고 몇몇 교인들은 남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공산 패잔병들로 보이는 1개 분대가 교회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김목사는 “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둑발로 짓밟는 거요?”하고 만류하자 공산군 사병 중 하나가 “어 영감쟁이 무슨 잔소리야”라고 반었고, “어서들 나가시오.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요”라고 김목사가 말하자, 공산군은 “반동이군”하면서 김목사의 가슴에 총을 드리웠다. 교인들이 앞을 막으면서 소리치기를 “이 분은 하나님의 사자예요”라고 하자, 공산군 사병 중 하나가 “간나이들 비키지 못해” 하면서 총을 쏘아 교인 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자 김익두목사는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 말하자, 병사는 뭐야 하며 총부리를 김목사를 향해 쏘았고, 김목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증언에 의하면 김익두 목사는 나무토막처럼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했다. 초대교회 교부(敎父) 터툴리아누스가 말했던가. “교회는(신앙공동체)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 초기 기독교 부흥사 김익두 - 안수기도로 병자 치유... '異蹟의 부흥사'

■ 김탁 <철학박사>

장로교 목사이자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金益斗)는 1874년(고종 11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아버지 응선(應善)과 어머니 전익선(田益善)²¹²⁾ 사이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으며 16세에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김익두는 한때 상업에 종사했으나 실패했으며,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 유산을 탕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삶에 회의를 느꼈다.

20세 이후 청년시절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싸움과 술주정을 일삼아, 인근 고을에서 '개망나니 김익두'로 불릴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27세 되던 1900년 봄에 김익두는 친구 박태환(朴泰煥)의 전도로 안악군에 있던 금산교회에 갔다. 여기서 그는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Swallen, W.L.)의 '영생'(永生)이라는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 입교하였으며, 신약성서를 1년에 100번이나 독파하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모하였다. 그후 1901년 7월에 김익두는 부인,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스왈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후 친구의 강권에 못이겨 술을 마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뛰쳐나온 김익두는 산에 들어가 대성통곡하며 회개기도를 하는 가운데 큰 불덩이가 몸에 떨어지는 듯한 환상을 보았다. 이 때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성령의 내적 임재(臨在)를 경험한 그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김익두는 1901년 10월 재령(載寧)교회 전도를 위해 헌신하라는 스왈렌의 권유를 받고 교역사업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스왈렌으로부터 전도실력과 신앙을 인정받은 그는 1903년에는 신천(信川)지역의 개척전도사로 파송되었다. 신천에서도 그는 새벽기도, 신약과 구약을 하루에 각각 2장씩 숙독, 냉수마찰, 가정에서 하루 3번 예배 등 스스로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그리고 항상 손에 성경을 들고 틈나는대로 읽었으며,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열중하였다. 김익두는 1906년 3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한 다음 황해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212) 김익선(金益善)이 맞다. 전익선(田益善)은 부인의 이름이다.

1911년 어느 날 김익두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에 홀연히 확신을 얻고, 신유(神癒)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힘써 기도하다 마침내 신유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에 의한 속죄, 회개에 따른 중생(重生) 체험, 부활과 천국의 영생복락 등이 중심이었는데, 설교에 나타나는 신비스런 능력과 매력에 청중들이 도취되었다.

1919년 가을부터 김익두는 서울의 남문밖교회에서 이재형과 함께 시무하였다. 이곳에서 김익두의 겸손한 태도와 기도생활, 능력있는 설교, 성경사랑과 해박한 지식 등이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는 여러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1919년 10월 강동(江東) 염파교회의 사경회에서 본격적인 신유의 능력을 갖춘 그는 그 뒤 많은 난치병을 고쳤다. 기록상에 나타난 최초의 이적은 1919년 12월 경북 달성군 현풍교회 사경회 때 턱이 떨어진 박수진(朴守眞)이라는 걸인을 낫게 한 일이다. 이후 1920년 4월 영남지방 집회 때에는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집단적 기적현상으로 발전했다. 이때부터 그는 '권능(權能)의 사자(使者)'로서 전국에서 부흥회를 열면서, 도처에 기사(奇事)와 이적(異蹟)을 일으켰다.

1920년 6월 31일 평양의 연합부흥회에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6,000여명이나 몰려 들었다. 이후 그가 제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피선된 후 그 해 10월 서울 승동교회에서 2주일간 열린 연합부흥회에는 연인원 1만여명이 참석하여 철야기도를 올리며 통회자복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당시 김익두는 '신유와 기적을 수반한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병어리가 말을 하고, 앓은뱅이가 걷고, 17년 된 혈류증 환자가 쾌유되며,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을 일으킨 인물로 소문났다.

한편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수족이요 자본주의의 주구로서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반기독교운동을 벌이던 사회주의자들은 김익두 등의 부흥사들을 '고등무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1922년 5월 9일자 동아 일보는 김익두의 부흥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체현하는 것보다 미설(迷說) 기적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한편 황해노회에서는 1919년부터 임택권(林澤權) 목사가 중심이 되어 '김익두 목사 이적증명회'를 구성하고 3년 동안 그를 통해 치유받은 자들의 신상과 기록을 사진과 함께 정리하여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증'(1921.7)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를 근거로 황해노회는 1923년 총회에서 "금일에는 이적(異蹟)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라고 규정된 장로교 헌법 3장 1조를 수정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건의는 1924년 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 총회를 계기로 김익두의 부흥회는 고비를 맞았다. 총회의 '이적 불인정'은 그가 여는 부흥회의 의미를 감소시켰고 당시 교회 내 지식계층이나 일반 사회주의 계층의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반 기독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김익두의 부흥 운동은 급격히 냉각상태로 빠져 들었다. 이러한 사태를 주시한 그는 이후로는 병을 고치는 이적을 삼갔다.

1940년 신의주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익두는 일본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어 교인들과 함께 신사 참배를 하기도 했다. 일제는 이를 기독교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선전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1942년에는 신사 참배에 적극 반대하다 종로경찰서에서 15일간 극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일제는 함구령을 내려 그를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직전리에 있는 과수원에 가두고 목사직을 수행하지 못

하게 했다.

광복 후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에 어용 기구로 기독교도연맹이 만들어졌다. 당시 김익두는 이 단체에 강제로 가입되었고, 1949년에는 그를 기독교도연맹 총회장에 임명하였다. 이는 그의 제자이자 김일성의 이종사촌인 전 목사 강양욱(康良煜)의 강권과 감언이설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 10월 14일 새벽 김익두가 신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후퇴하던 인민군이 난입하였다. 인민군들은 쫓기는 화풀이로 그를 총살시켰으며, 이 때 이를 말리던 신도 5명도 함께 순교했다. 그의 유해는 교회정원에 가 매장되었다가, 그해 11월 29일 신천군 제직회 주최로 신천지역 50여개 교회가 모여 서부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무려 50여년 동안 김익두는 국내,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두루 다니면서 총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150여 곳에 새로 교회당을 세웠다. 또한 2만 8000여회의 감동적인 설교로 수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을 뿐만아니라,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아울러 그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명에 이르렀다.

그가 남긴 저작으로는 부흥회 설교 13편을 모은 '부흥회설교집'(1940년)이 있다. 김익두는 초월적 신비주의 운동가로서 한국교회의 부흥회를 대표하는 '이적의 부흥사'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3·1운동 뒤 민족적 좌절을 겪고 사회변화와 각종 이데올로기의 대두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던 폐허의 한국교회에 영적인 재각성을 도모하여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신유의 신앙운동으로 재기의 에너지와 열기를 주었던 목사였다.

아울러 그는 19세기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Moody, D.L.)에 비견하여 '한국의 무디'로 평가되었다. 또 안수기도로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여 '과학을 초월한 불가사의를 행한 자' '신비의 잠을 깨운 자' 등으로 불리며 이후 한국교회의 독특한 부흥회의 전범을 마련한 영적 능력을 지닌 목사로 기억되고 있다.